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1 | No. 2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표지사진 간월도 굴부르기제 (김원희)

자연으로 자생하는 간월도 지역 굴이 풍요로워 지도록 기원하는 행사로서
매년 음력 1월 15일은 모든 주민들이 한데 모여 기원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1 | No. 2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전 문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이에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 충남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 충남도민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 충남도민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 보장) 도민과 충청남도는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도민과 충청남도는 문화시설, 전통문화유산, 문화행사와 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충남의 문화공동체 지원) 도민은 문화 창작과 향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충청남도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8조(문화 협치)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문화 협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참여) 도민은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0조(평가와 의견수렴)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도민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문화권 신장을 위한 의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은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 해소) ‘함께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도와 도민은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 확보)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도민 문화권 선언이 도민의 삶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합니다.

2020. 10. 29.

도민대표단 일동

문화 1번지 충남을 기대하며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유 환 동

충남도내 지방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1만5,000여 문화가족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잘 이겨내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주심에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해부터 2년째 계속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더욱 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 문화원들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과없이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도 올해 1년간 지방문화원 임직원들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충남도민 문화의 날 선포식과 함께 충남생활문화 한마당 행사, 구술채록 사업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처음 주관하여 개최한 충남생활문화 한마당 행사는 도내 15개 지방문화원과 함께 활동해온 생활문화 동호인 1,000여명이 참여해 충남 생활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화합잔치로 승화시켜 충남 문화원과 문화가족들의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생활문화 한마당 행사에는 도내 15개 지방문화원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생활문화를 전시 발표하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충남의 문화를 선보여 충남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충남문화원연합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선포식을 가진 충남도민 문화의 날은 문화분권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에 발맞

취 문화로 하나되는 충남 문화로 행복한 문화충남을 만드는데 우리 문화원
들이 앞장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라져가는 향토민속자료와 지역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기 위
한 구술채록 사업을 비롯한 지방문화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은 앞으로 충남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
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과와 실적을 기반으로 충남의 문화예술을 선도해나가 지
방문화원 발전은 물론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나가야 할것입니다.
충남의 문화예술이 대한민국의 문화로 발전해나가고 나아가 세계적인 한
류문화로 발전시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충남이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 문화 1번지로 거
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축년 한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1년을 견뎌왔기에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임인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감염병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어렵게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우리는 결코 슬기롭게 이겨내고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오리라는 믿음
속에 시작한 어렵더라도 결과는 좋은 임인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 모두 신축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호랑
이의 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Contents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1 | No. 25

08 테마기획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의 약속”,
「충남 2030 문화비전」 실천으로 지킵니다.
네트워크를 늘려서 함께 커가는 공진화를

14 특집코너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22 풍경의 유혹

천안의 12경! 광덕산의 절경!
사철 내내 푸름 생기 “상록리조트”
사람이 모이는 공주 오일장, 공주산성시장
가고픈 섬 외연도, 그리고 당제
순교성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
달빛과 물빛, 그리고 사람-탐정호 출렁다리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수상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천년 시간 속의 풍경, 태고사
백제를 품고 있는 백제 문화단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문화적 가치
윤남석 가옥
서해명산 오서산
칠방이섬과 장안사퇴

No.25 충남문화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유환동

편집위원 황의호 보령문화원, 권선옥 논산문화원,

정찬국 부여문화원, 김형기 온양문화원, 박은희 서천문화원

디자이너 김기연

기획 조남민

편집 김상희

행정 조민영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3호

TEL 041)635-9102~3 FAX 041)635-9104

편집·인쇄 대한인쇄사

※ 본 책자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8 문화원이야기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다
푸드테라피 '요밀조밀'
예술에 스며들다, 공주갤러리주간
까잇거, 나도 이제 영화감독!
'달그락 Drive in concert' 성황리 개최
스산 根草Go 짬뽕공예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시(詩)로 물든 황금빛 인생'
2년 만에 다시 열린 '2021 당진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발표회'
남일면 비석제
제8회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무사안녕 기원"
어르신 합동자서전 발간사업
전통혼례식 시간여행 속으로
첫 프로젝트 ; 옛스러움을보다 땅.짚.다
30회를 맞이한 소성백일장

78 문화공감

내 마음의 시 창작시-당신을 만난 날
애송시-사랑에 답하다
나의 인생책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 「할머니의 조각보」
-페트리샤 폴라코
헤아림으로 만나는 타인

맛집멋집 프로그램
언제나 맛있게 [뚜주르 제과]
우리 문화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서천 서각동호회
우리춤으로 행복한 동행
청양문화원 가요장구

94 연합회 활동상황

2021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96 연합회 및 문화원 소식

충남, 잊혀진 근현대 시간을 말하다
2021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제26대 김윤식 문화원장 취임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공주문화원, 제17대 최창석 문화원장 이임,
제18대 이일주 문화원장 취임
'2021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공주팝소악제사 야이니셋별상
논산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선정
금산문화원, 공명아우라 금산아트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의 약속”, 「충남 2030 문화비전」 실천으로 지키겠습니다.

글 노상권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충남의 문화예술 현황

OECD의 '2017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사회 및 경제 양극화로 인한 개인별 소득 격차가 심해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 활용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 결국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개인이 만족할 만한 문화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문화적인 삶을 충분히 누리는 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 재난에 처한 개인과 집단을 치유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문화와 예술의 치유기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0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면, '시간 사용에 대한 만

족도'는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4.7점, 주말은 4.26점으로 낮았다.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율'은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이 가장 높고, 문화예술 관람/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문화적인 삶보다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휴식상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도'는 국내외관광/여행이 높고, 그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참여 순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사한 비율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도민들은 응답하였다.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보고서」를 살펴보면, 9개 도 지역 중 인구 천 명당 문화예산 규모는 5위,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6위를 차지해 도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기반시설 측면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체(문화단체 및 예술인)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문화단체수는 6위,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8위, 인구 천 명당 공연 건수는 7위로 하위권

에 머물러 있다.

도내 문화예술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예술인 취업 비중은 2018년 53.8%에서 61.4%로 증가, 예술인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은 2018년 56.8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36.1%로 전국 기준(25.4%) 대비 차이가 크며, 신진청년예술인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발전을 통한 복지도 중요하나, 도민의 정신적 풍요와 건강을 위한 문화 역량 강화정책이 필요하며, 일상의 삶에 지친 도민들께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선 7기에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민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예산확보와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 2030 문화비전」 선포 및 10대 선도시책 추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대되고,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적, 계층적 요구에 따라, 도민의 품격있는 문화 향유와 건강한 삶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문화·유산·체육·관광 종합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을 2020년 10월 29일 선포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은 가장 민주적으로 추진·수립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전문가 중심으로 세우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수렴, 권역·계층별 공청회, 시·군 관계공무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5개월여 간 도민 8,107명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완성하였다. 정책의 기획부터 수립까지 모든 과

정에,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도민까지 참여한,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은 ‘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 모두가 문화를 함께 누리며 더 행복한 충남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아, 4대 목표, 10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문화로 도민의 권리를 실현할 것 - 도민 문화향유권의 제도적 보장과 예술인의 창작권리 지원(예술인 기본소득제 시행 등), ② 문화로 평등과 공존을 인도할 것 - 도민 누구나 20분 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인프라망 구축(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 문화정보서비스체계 완성), ③ 문화로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 - 내포신도시, 서해안권 등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인프라를 활성화해 새로운 원동력으로 이끌어낼 것, ④ 문화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 - 관이 이끌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실현해 나갈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충남 2030 문화비전」의 가치 실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 건강체육 등 5개 분야에 우선 필요한 ‘10대 선도시책’을 선정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① 문화예술 분야 - 도민문화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향유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마련,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청년예술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② 문화유산 분야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문화산업 분야 - 일자리 확충을 위한 문화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 ④ 문화관광 분야 - 지역자원 활용한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⑤ 건강체육 분야 - 스마트 헬스케어 체육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밖에 문화인프라 소외지역 현황 파악 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도본청 문화재정을 2020년 4.5%에서 2030년 6%로 향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20년 59억 원에서 2030년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

정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주요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충남 2030 문화비전' 실행 노력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정책 자문과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도 해당 부서와 공공기관, 15개 시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권리 실현, 문화향유 확대, 미래문화 기반 조성, 문화협치 구축 등의 문화비전 이행평가 결과, 당진시(최우수)를 비롯하여 논산시(우수), 홍성군·서산시(장려)가 각각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수립 후 구체적 실행방안의 모색을 위해 지난 8월에는 문화비전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 IN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의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에서 다룬 주요내용은 '접근이 편리한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 젊은 예술인이 정착하는 청년예술인 육성정책',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다양성 확대'로 토론자의 발표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었다. 「충남 2030 문화비전」 <행복 IN 문화포럼>은 '서울문화투데이 2021년 10대 문화계 뉴스'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개발 및 실천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2년 주요 선도시책으로 우선 5개 분야 7대 시책을 제안하였다. ① 문화예술 분야 - 충남도민 문화주간 운영, 충남메세나 활성화, ② 문화산업 분야는 - 우수 ICT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③ 문화유산 분야 - 종교문화 자원화, ④ 건강체육 분야는 -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정기리그 확대, ⑤ 문화관광 분야 -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 연구 개발을 주요 시책으로 선정하였고, 평가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인프라 토대 마련

충남도의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도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지역 거점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미술, 음악 등 전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대규모 거점 문화시설인 「충남미술관」을 2024년 개관 목표로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예술의 전당」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충남관광재단」 설립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 역사문화 전시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3·1운동 백년의 집」, 한국유교문화 전문기관인 「충남 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체육활동의 거점이 될 「충남스포츠센터」 또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작은미술관', '작은음악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예술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미술, 음악 분야 예술인의 작품 전시와 공연 기회 확대를 통해 기초예술 저변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문화가 충남의 정체성이자 도민의 삶을 이끄는 밑거름이다. 진정한 문화는 도민들 모두가 스스로 창조하는 주체성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보장할 제도 도입 등 과제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실천이 중요하다. 충남의 미래도, 도민의 행복도 결국 모두 문화 속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도민, 문화예술인, 기업인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늘려서 함께 커가는 공진화를

글 이흥재 前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우리 문화원은 어디에 서 있는가?

문화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 지역문화원이 전환점에 놓여있다. 외부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운 겨울 어두운 땅속을 뚫고 나와 봄을 만날 잔디 풀의 마음가짐(芝心)을 지녀야한다.

문화원의 위상을 생각하면 영화 대사 한토막이 생각난다.

“잊혀지는 것이 느껴지지만, 잊혀지고 싶지는 않아”

지역문화의 텃주대감인 문화원이 새내기 문화단체들과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 충남의 문화원 가족이라면 자괴감을 떨쳐내고 한번 호기를 부려도 된다.

“문화원이 우리 지역 문화의 미래다”

인생의 모든 출발은 첫발자국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대 전환기에서 지역문화의 봉수대에 발을 딛고 우뚝 선 문화지킴이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신 있게 우리를 던

질 때 많은 새로운 가치들이 의미 있게 전개된다.

문화원의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뭔가를 펼쳐보려면 너무 적은 재원의 문턱에서 걸린다. 사실 적은 편이다. 언제까지나 돈 타령만 할 것인가.

눈 속에서 살아가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말하는 단어를 22개나 쓴다고 한다.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문화활동에서 돈도 절대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에 맞춰 수 십 가지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혹시 일을 못하는 이유로 돈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

문화원은 돈은 적지만, 문화콘텐츠는 보물창고에 가득하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문화가 가장 많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문화콘텐츠는 지역에 널려 있다. 오랜 역사동안 한 지역에서 농경정착민족으로 살아 온 우리의 콘텐츠는 지역이 보물창고다. 이제 콘텐츠가 밥 먹여주는 시대다. 화석이 바뀌어 석유로 나오듯이 오래 묵혀두었던 우리의 삶이 역사문화콘텐츠로 지역을 먹여 살린다. 우리 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찾고, 지키고, 기록하고, 활용하는데 제공해 왔다. 문화원은 지역 문화콘텐츠 리더들이다.

지역 문화콘텐츠 리더인 문화원가족들이 이 전환기를 뚫고 미래를 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원의 원장, 사무국장, 직원들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매향이다. 뉴욕같은 세계도시에서도 6m안에서 지인을 만나고, 만날 운명에 놓여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역에서 매일 지인을 만난다. 아직도 문화가족은 아니지만 매일 만나고 살아가며 부비고 산다. 우리 문화가족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운명에 놓인다. 지역사회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리더로서 주민들과 만날 경우 우리는 빛나는 스타같은 존재이다.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한 법”.

지역에 인물이 많고, 일터도 많고, 일거리도 참 많지만 문화원만한 곳이 없다. 오래 몸을 담고 일하는 원장, 국장님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한결 같이 그렇게 말한다. 오래 근무하면서 점차 더 참값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인간의 본성을 주로 연구하는 철학자 앨리스 재거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새삼스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도 평범한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망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게 살도록 충동질하며 사람들이 증독되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사회다.

우리 문화원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자괴감

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려고 독을 삼키는 꼴”이다. 문화원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이 급변하는 사회의 전환기에 독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말은 그래도 문화원 현실이 열악한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자신과 남을 깎아 내리는 데만 열을 올린다”. 또, “현실을 부정하면 속은 편하지”라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American beauty)대사처럼 자신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미래를 담보할 것이 없어 곧 허망해진다. 이는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오줌 누는 꼴이다. 안 들킬지는 몰라도 자신이 결국은 그 물속에서 놀게 된다.

승자가 되려면 승자처럼 생각하라

비행기는 뜨거운 공기 흐름을 타고 땅바닥에서 높은 하늘로 떠 오른다. 오랫동안 지역문화의 바닥을 다져 온 문화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갖추서 높이 날아 오르자.

먼저 지역의 문화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자. 분석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문화원이 감당 못할 사치는 아니다. 지난 성장시대 때 우리는 ‘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일을 더 많이, 관람객 숫자를 더 많이, 더 빨리, 전에 없던 더 새로운 것을...

이제는 ‘참값’을 찾아야 한다.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 오카모토 타로는 우리시대를 ‘문화 폭발’ 시대라고 말한다. 더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지역문화의 참값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리는 활동이 빛나는 세태가 되었다.

문화원은 조직이 작고, 직원은 적다. 이 현실은 정부와 문화원의 관계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 물론 문화원에 따라서 큰 조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곳도 있다. 그런 문화원을 잘 들여다 봐야한다. 그들은 작은 조직, 적은 구성원의 장점을 살려낸 곳이다.

요구하지 않으면 요구 당한다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을 당한다. 작은 조직에서 자기 고유목소리를 내는 것이 큰 조직에서 떠밀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일을 역사에서 흔하게 봐왔다. 문화원의 국장이나 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크림 통속에 빠진 생쥐는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 크림이 버터가 되었다, 그래서 생쥐는 자연스럽게 걸어 나와 살게 되었다. 이 코로나 환경,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단들, 문화를 모르는 지자체 장이나 의원들과 힘겨루기..., 발버둥치며 살려고 하는 문화원들의 지금 현실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림통을 자연스럽게 벗어나와 꽃길로 다시 접어들 것이다. 문화원은 저력이 있고, 문화에 미친 창의적인 인력이 있다.

바람이 불면 곳곳이 서서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 문화원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닳치고 있다. 문화원 국장이나 원장이 곳곳이 몸을 곧추세우고 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한다. 문화원장은 벼슬자리가 아니고, 문화원 국장 자리는 밥벌이하는 취직자리가 아니다. 문화원은 직원들이 좋은 직장으로 갈아타기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지역의 문화를 이끌

어가는 창발적 전문가들의 활동터전이다.

저위 어딘가에 우리 문화원의 운명을 미리 정해둔 차트가 있는가?

없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불안도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원의 미래 모습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재미가 없다. 문화원의 가족들이 만들면서 지역에 아름다운 문화를 재미있게 채워가는 것이다. 문화 활동가는 자신을 판매한다. 그리고 시간을 판다. 문화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흥미와 끼를 팔아 지역문화 활동을 펼친다. 그래서 문화의 고유가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지역문화로부터 받아 온 사랑의 참값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지역문화를 사랑할 수 있다. 이기심, 욕심, 명예욕으로만 가득 찬 삶은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 문화를 매개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문화원을 기둥삼아 사랑 가득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바로 문화원 안에서 ...

문화원이 평생의 안식처인 것을 우리 문화원 가족들은 운명적으로 느끼곤 한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

문화예술을 알고 사랑하는 문화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린 꽃씨가 문화의 봄을 맞아 지역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새해에 우리는 이를 실천하며 즐거운 지역문화에 우리 문화원의 명예를 새길 것이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유환동)가 주최한 '2021 충청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이 10월 23일(토) 오전 10:30분, 충남도청 남문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충남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 충남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화로 하나되는 충남!'을 주제로 1부 충청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2부 충남생활문화한마당, 3부 문화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충남지역 생활문화동아리 및 지역주민, 관광객 등 1천여 명이 질서 있게 행사를 관람하였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소독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다.

식전공연으로 펼쳐진 홍성지역 보부상과 풍물패의 길놀이와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고, 이어진 맨인브라스 밴드의 관악 공연은 흥겹고 신선한 공연으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위원장,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홍문표 홍성·예산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뜻깊은 축사를 전해 주었고, 충남지역 각급 주요 기관장 및 충남도내 15개 문화원장 및 문화예술 관련 내빈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민 문화의날 기념식

충남생활문화동아리한마당



문화의날 선포식





충남도청 앞 넓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 1부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은 지역 문화예술의 상징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旗) 및 충남지역 문화원의 원기 입장을 시작으로 문화원연합회 홍보영상 시청, 충남도민 문화의 날 선포식, 지역 문화원장이 함께하는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낭독, 문화발전 유공자 시상, 축시, 주제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충남도민 문화의 날을 제정하는 '제1회 충남도민 문화의 날 선포식'이 깊은 관심 속에 열렸는데, 이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진행된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유환동 충남문화원 연합회장은 선포식을 통해, “문화비전 2030으로 문화로 행복한 충남을 이끌어 가는 충남도와 함께 220만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을 충남도민 문화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히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는 충남문화예술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실질적인 문화 창달을 이루며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향후 지역



문화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한해 동안 지방 문화원의 위상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문화원과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2021 올해의 충남문화원 및 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각 시·군 문화원의 후보 추천서를 받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올해의 충남문화원 대상의 영광은 '서천문화원'으로 돌아갔고, 충남도지사 표창은 논산문화원의 '이준창 사무국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충남지역에서 오랜 문인활동을 하고 있는 구재기 시인이 직접 쓴 '여명黎明의 시각時刻에는 바람이 없다'를 낭송하였고, 전통예술단 '흔'이 화려한 주제공연을 선보이면서 '문화로 하나되는 충남!'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2부 충남생활문화한마당은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실력을 다져온 충남지역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열띤 경연으로 시작되었다.

충남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들은 각 지역의 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강습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데, 해마다 생활문화축제를 통하여 그 실력을 뽐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충남문화예술의 품격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의 생활문화한마당 축제는 충남의 15개 문화원과 계룡시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참여하였는데, 공연 부문은 충남의 각 시·군 동아리 27팀이 참가하였고, 체험과 전시 부문은 각 문화원을 중심으로 동아리 38개 팀이 참여하였다.

2021년부터는 공연과 전시부분에 대한 시상을 통해 생활문화 동아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문화원, 충청남도, 충남예총, 충남민예총 관계자를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동아리 공연, 작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의 면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다.

16개 시군의 전시체험부스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문화예술기관단체장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문화원의 문화예술동아리 역량이 이 정도로 높은 줄을 미처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생활문화한마당 경연 대회 심사 결과, 공연부분은 온양문화원의 ‘허튼가락’팀이 대상을, 전시 및 체험부분은 금산·홍성·태안·천안서북구·보령문화원에서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날의 특별상인 ‘종합상’의 영광은 온양문화원에게 돌아갔는데, 김형기 사무국장이 각설이로 분장해 행사장 전역을 돌며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띄워 올린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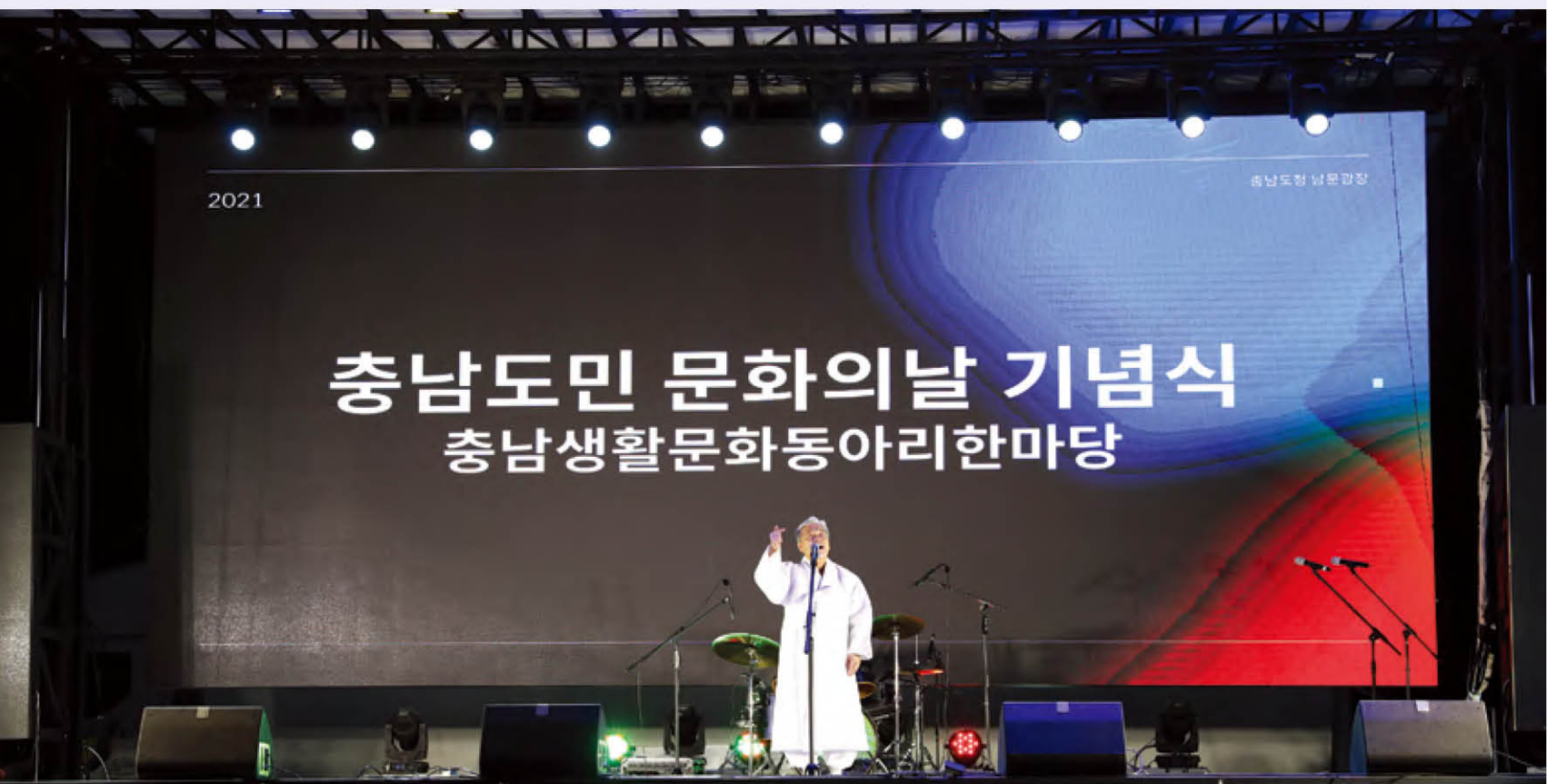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가운데 시작된 3부 공연마당은 지역 가수와 전문 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펼쳐졌다. 만해 한용운의 시 ‘인연설’과 ‘님의 침묵’을 노래로 만든 가수 하이런과, 씨름선수 출신의 가수 김경아의 흥미로운 노래, 품격 있는 남성 중창단 아티스트의 호화로운 무대와, 3인조 밴드 프롤로그의 관중을 뒤흔드는 공연이 이어졌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은 행사장의 마지막 대미는 홍성지역 출신의 소리꾼 '장사익'이 장식했다. 장사익은 충남 홍성이 고향으로,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꾼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다. 그는 이날 친정 고향에 내려온 편안한 느낌과 설렘을 잔잔한 노래에 담아, 그야말로 '문화공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너른 충남도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충남생활문화한마당을 폐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관람객과 지역주민들 모두가 환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내포지역의 한 주민은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갔다"며 "오랜만에 추억에 남을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쁘고, 내년에도 꼭 개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 올해의 충남문화원상

대 상 서천문화원

2021 충남 문화발전 유공자상

충청남도지사 이준창(논산문화원 사무국장)

충청남도의회위원장 김윤숙(前 당진문화원 부원장)
석현숙(前 금산문화원 과장) 진인행(태안문화원 강사)

충청남도교육감상 이 안(홍주문화관광재단 이사)
이관섭(천안시서북구문화원 부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현주(前 공주문화원 부원장)
남기은(당진문화원 이사) 심인자(온양문화원 강사)
윤금선(청양문화원 강사) 조원찬(홍성여자중학교 교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상 김영란(부여생활문화센터 간사)
박은희(서천문화원 사무국장) 윤재경(서산문화원 간사)
이 슬(천안시동남구문화원 주임) 장화수(예산문화원 주임)

공연 부문

대 상 온양문화원(허튼가락)

금 상 서천문화원(색소폰 봉사단)

은 상 예산문화원(예산농업기술센터 춤사랑 동호회)

동 상 홍성문화원(밴드노트)

인기상 청양문화원(청양가요장구)

정려상 공주문화원(시꽃 시낭송협회) 금산문화원(나아내풍물)
태안문화원(셀위댄스)

전시 및 체험부문 종합상

화합상 온양문화원(시서화목필연, 프리다칼로)

전시부문

우수상 금산문화원(꽃드림사랑드림)
홍성문화원(차사랑, 청춘공방, 홍주사학회)
태안문화원(화심회, 묵내음)

정려상 서산문화원(더 그리다, 문화사우회)
당진문화원(느티나무동아리, 매듭고니, 드림보테니컬, 묵향담아)

체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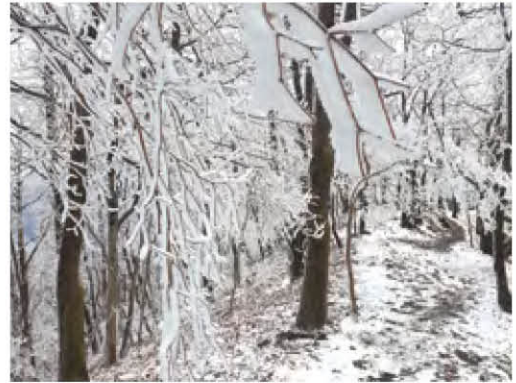
우수상 천안시서북구문화원(꽃가치)
보령문화원(보령캘리페인팅, 은빛켈트)

정려상 천안시동남구문화원(꽃사랑 그림사랑)
논산문화원(맑은 누리, 톡!톡! 톡! 칠보놀이)
부여문화원(꽃잎에마음을담아, 다화, 백수채, 사비한국화, 지화플라워)

천안의 12경! 광덕산의 설경!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사적지, 병천순대거리, 태조산각원사,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왕지봉배꽃, 입장거봉포도마을, 흥타령춤축제, 천호지야경, 아라리오광장, 그리고 광덕산의 설경까지, 천안에서 타지역민에게 알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12경중 하나인 광덕산과 그 설경을 소개해보려 한다.

글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광덕산 등산로

우선 차령산맥의 유산인 광덕산의 역사를 알아보자. 광덕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덕이 있고 천안지역에서 제일 높고 큰 산이기 때문에 광덕산이라고 지칭된다고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태화산'으로 불리다가 조선 초에 자비를 널리 중생들에게 베푼다는 '광덕보시'에서 유래한 '광덕산'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광덕산에는 광덕사, 잣나무 군락지, 장군바위, 강당사 등의 볼거리가 많다. 광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중국에서 부처의 사리, 가사, 화엄경 등을 가져와 창건한 이후 여러 대에 걸쳐 중건과 중창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고찰이다. 고려사경, 광덕사 대웅전, 광덕사 삼층 석탑 등의 문화재가 있고, 이 밖에도 호도나무 전래비와

조선 시대 기생이자 여류시인이었던 김부용의 묘가 있다.(본원에서 김부용의 일대기를 그린 서적을 발간함)

장군 바위는 장군이 투구를 쓰고 있는 모양이므로 장군 바위라고 부른다. 위치는 망경산과 광덕산의 중간에 있다. 산의 높이는 699m로 천안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키 높이까지 합산한다면 해발 700m 이상의 높이, 조금 억지를 부려본다.

위치는 천안시 광덕면과 아산의 배방읍·송악면과 맞닿아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천안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아산에서도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참고로 수회 등산을 해본 결과, 한 가지 등산코스로 등산과 하산을 하는 것이



광덕산 정상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차량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지역 간의 대중교통의 연결노선도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된 체력과 아름다운 산의 다양한 풍경에 취하고 싶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광덕산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지만, 등산하기 쉽지 않은 산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초보 등산객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광덕산은 우리지역 12경 중 7경에 꼽을 만큼 아름다운 설경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풍경도 다채롭다. 게다가 우거진 숲에서 발산되는 맑은 공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지역의 명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천안시민들이 자주 등반하는 산으로 대다수의 시민이 사랑하고 그들의 건강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광덕산을 이제 등산해 보자. 주차장에 주차하고, 등산로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향해본다. 걷는 도중에 도로 옆 냇가에 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주변에는 다양한 건물양식의 카페와 여러 식당과 같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주차장에서 등산로 입구까지는 약 300m 정도 더 걸어가야 한다. 이윽고 입구에 들어서니 우측 시냇가에 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또 한 번 시원하게 들린다. 조금 더 걸어가니, 광덕사라는 사찰이 나오고, 400살이 넘는 나이의 거대한 호두나무(광덕면의 특산품은 호두)가 등산객들과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을 반겨준다.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등산로의 흙바닥과 흩뿌려져 있는 돌들을 밟아가며, 주변 나무와 각종 수풀을 감상하며, 등산이란 맛의 풍미에 흠뻑 빠져보려 하는 즈음...! 기나긴 나무계단이 보인다. 잘 정돈된 이 나무계단을 올라가 본다. 10계단.. 100계단.. 200계단...300...계단..400....500.....보일 듯 보이지 않는 계단의 끝은 어디일까, 벌써 상의가 축축하고, 정수리에는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쉬지 않고 568계단의 나무계단을 오르니 팔각정이 보이고, 바로 옆 벤치에는 앞서가던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물 몇 모금을 마셔보면서 갈증을 털어내 본다.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본다. 나무계단과 돌계단, 그

리고 비탈진 흙바닥의 연속이지만, 땀으로 흠뻑 젖어 무거워진 고개를 최대한 들고 수목으로 우거진 주변을 둘러본다. 모든 산이 크게 다르지 않듯이, 우거진 나무와 수풀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어우러져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등산로가 아닌 길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능선은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라서, 나물 채취나 다른 목적으로의 비 등산로 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등산로만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올바른 인식과 등산문화가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유의점을 덧붙여 보았다.

가쁜 호흡의 연속과 휴식을 반복하니, 점점 파란 하늘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산 정상에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진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에 올라가니, 산 아래 주변지역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자연의 장관이 연출되고, 정상석 2개가 광덕산 정상에 우두커니 서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로 뻗어있는 드넓은 설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인다. 또한 흐릿한 안개가 가미되니 희미하게 찍힌 설경사진을 인화해 놓은 듯하다. 정상에서의 기념촬영을 하고 난 뒤, 광덕산의 다채로운 모습과 설경에 조금 더 취해보기로 마음먹으며 내려오는 하산길에는 발걸음을 천천히 움직여 보면서 걸어 보려 한다.

정상을 뒤로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끝없이 이어지는 소복소복한 백설의 눈길은 등산객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해주는 듯하다. 하지만 발끝의 감각은 온기가 느껴지고, 그러낼 수 없는 등산만의 매력과 감성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고개를 살짝 들어본다. 나뭇가지에 얹혀 있는 적당한 두께의 새하얀 눈은 마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가 새하얗고 따스한 외투를 입어 보이는 모양새이다.

말려서 형용할 수 없는 광덕산의 설경,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맞이하는 12월이고, 한겨울에는 어김없이 눈이 올 것인데, 봄이 오기 전에 천안의 명소인 광덕산의 설경에 같이 취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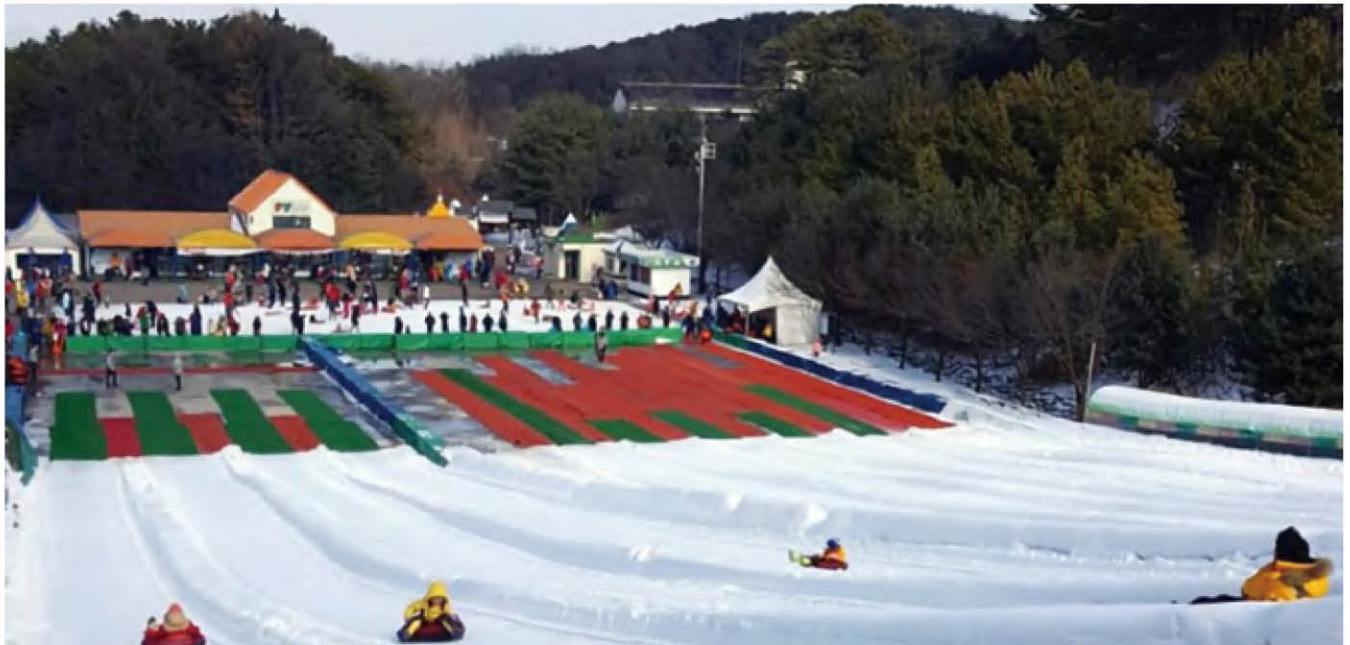


사철 내내 푸름 생기 “상록리조트”

소풍으로 가장 원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당연히 놀이공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대형 놀이동산도 있지만 나의 인생 첫 번째 놀이공원이자
 아직 기억에 남는 곳은 “상록리조트”이다.

글 **최은지** 천안서북구문화원





천안에서 나고 자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소풍은 무조건 1순위는 상록리조트였다. 질릴 법도 하지만 나는 항상 너무 즐거웠고 전날도 잠도 못 이루는 어린나날을 보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추억이 가득한 풍경의 장소, 상록리조트는 지난 1996년 12월 [천안상록리조트] 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그 다음해 12월 놀이공원과 아쿠아피아 등 레저시설 및 스포츠 다양한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장했다.

상록리조트는 이름에 걸맞게 사계절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놀이기구도 있지만,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썰매장 또 어른들을 위한 넓은 골프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천안사람이라면 한 번쯤 갔을 법한 곳이며, 학교에서 소풍으로 못 가면 부모님과 친구들과 꼭 매년 방문한다.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 친구들과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김밥 속 재료를 서로 확인해주고 바꿔먹고, 놀이기구 타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먹는다.

놀이공원엔 그런 풍경이 있다. 구름을 가져온 듯한 솜사탕, 아이스크림 가게엔 없는 3단 아이스크림, 놀이기구 아래에서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풍경,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런 추억이 가득 담겨있다.

추억이 가득한 상록리조트는 사계절 내내 가볼 수 있다. 봄엔 놀이기구, 여름엔 수영장, 가을엔 나들이, 겨울엔 썰매장으로 계절마다 색다르게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는지 사시사철 푸를 것 같던 상록리조트도 새 단장이 필요하고 노력중이다. 요즘 취미 스포츠로 인기 있는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습도 선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도 겸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상록리조트는 늘 우리를 반길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좋아지고 다양해진 다른 곳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어린 시절이고 부모님, 친구와의 추억의 장소이다.

더 추워지기 전, 이번 겨울에 썰매를 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요즘, 기분전환으로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는걸 추천한다.

사람이 모이는 공주 오일장

- 공주산성시장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드는, 매섭기만한 차가운 바람이 내 몸에 짹짹 들어왔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간식이 있다.
바로 겨울 간식계의 쌍두마차인 붕어빵과 호떡. 추위로 불과 코가 빨개진
문화원 식구들을 녹여줄 붕어빵을 구하러 문화원 근처에 있는
공주산성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 정지은 공주문화원



공주산성시장



공주산성시장 오일장 풍경

공주장날은 오일장으로 숫자 1과 6이 들어가는 날, 즉 닷새
마다이다. 백화점이 없는 공주는 한 공간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곤 마트와 재래시장뿐이다. 마트는 어느
때고 쉽게 갈 수 있어 편리하지만 대형마트에서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 텃밭과 에누리 그리고 정이 이곳에 차고 넘친다.
시장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상인들의 “싸게 드립니다”,

“보세요”라고 외치는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시끌벅
적하다.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
람들이 어우러져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단골
마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인심 좋
은 말들이 오간다. 웬지 모르게 이 소란스러움이 정겹고 좋다.
산성시장은 공주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1937년에 개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시장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이라고 한다. 특히나 육로보다는 수운에 힘입어 금강 물길을 따라 물화교역이 이루어지던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공주장은 공주포구를 통해 뱃길로는 충청의 동부, 육로로는 충청의 북부까지 상권이 미쳤던 큰장이었으며 한때 경상도 대구, 강원도 원주와 더불어 호남의 약령시권을 쥐락펴락했던 약령시장이기도 했던 공주 전통 오일장의 맥을 지금까지도 잇고 있는 시장이다.

공주산성시장은 노점을 포함해 약 37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시장 골목이 형성되어 크게 5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산성시장 1길~5길로 부른다. 또한 시장 안뿐만 아니라 시장 밖에도 노점상이 많이 세워져 살 것이 없어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정말 이곳은 없는 게 없다. 시장 안을 헤집고 다녀보면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었나?' 싶은 오래된 물건들도 있고, '이런 게 여기 있다!' 싶은 의외의 것들도 있다. 고급스런 아이템은 아니어도, 장바구니 가득 추억 한보따리를 담아올 수 있다.

시장 안 표지판에서는 웅진로, 무령로 등 백제와 만날 수 있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웅진이 지금 공주산성시장 안을 걷다 보면 문득문득 백제와 마주치게 된다. 시장 곳곳에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본떠 점포마다 붙여놨는데 가게 홍보문구나 좋은 글귀 등이 적혀있으니 가게마다 어떤 글이 있나 읽는 재미도 있다.

요즘은 딸기가 제철이라 가판대마다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 끝물을 맞은 굴과 석류, 사과도 한쪽에 보인다. 콩나물이 나 버섯이라도 한 봉지 사면 비닐봉지가 터질 정도로 채워주

시는 할머니의 인심덕에 시장에는 훈기가 돈다. 방앗간 주위로는 직접 짜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득하고, 곡류도 여럿이다. 바다에서 온 오징어를 비롯한 싱싱한 생선들도 가득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장 구경을 하다보면 무조건 배가 고프다. 분명 점심을 든든히 먹고 왔지만 산성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후각적 자극에 공격당해 행복하기가 일쑤다. 하지만 행복과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 때문에 본격적인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시장 곳곳에서 팔고 있는 빵튀기와 닭강정, 아이들이 줄지어 서 기다리는 두툼하고 고소하다는 간식집의 떡볶이와 잡채만 두는 나오기가 무섭게 동이 난다. 시장은 음식이 맛있기도 맛있지만 역시 저렴한 가격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손에 따뜻한 봉어빵 하나 들렸다고 금세 추위를 잊게 된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신 따뜻한 봉어빵 안에는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팔 양금, 내가 좋아하는 슈크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 봉어빵을 뚫고 튀어나올 정도였다.

시장 인근에는 시내버스 공용터미널이 있어, 계룡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산성시장에서만큼은 두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구매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후회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풍성해지는 산성시장 나들이이다.

가고픈 섬 외연도, 그리고 당제

그렇그런 눈망울의 어린 솟소,
슬픈 눈빛 잊혀지지 않아...

글 한흥호 보령문화원



전횡장군은 중국 제나라 때의 무장이다. 유방과 같은 시대에 활약한 인물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 투항하는 대신 장수 500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 섬에 은거하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유방의 부름이 계속되자 부하들의 목숨을 생각, 유방에게 가는 길에 스스로 자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부하들도 모조리 자결하였다고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이 일부 나온다. 이 때 피신했던 섬이 외연도라는 그럴듯한 믿음으로 외연도와 일부 서해안 섬에서 그를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다.

쉽게 가보기 어려운 섬이기도 하려니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제'를 본다는 기대와 설렘에 외연도행 뱃길은 그리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당제는 밤 12시에 열리기 때문에 꼬박 밤을 새워야 하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조언에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까짓거 하룻밤 정도야 어쩌랴 의기양양 배에서 내렸다.

외연도 당제는 매년 음력 2월15일에 열렸으나 올해는 5월 26일에 열렸다. 이유는 작년에도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였고 올해에도 그냥 넘어가려하였으나 섬 주민이 바다에서 상을 당하는 등 흉사가 이어져 늦게라도 제를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마을 가운데 한 민가엔 당기가 높이 나부끼고 있었고 민박집 주인은 그 집이 당주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낮에 도착했으니 당제 준비하는 모습도 스케치가 필요하겠다 싶어 당산으로 올랐다. 10여명의 남성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쌀을 씻어 고두메(팻밥)를 지으려는 사람, 칼을 가는 사람,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 등 하나같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큰 가마솥에선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었다. 카메라로 이리저리 찍어대니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문화원에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니 다들 성심껏 설명해준다. 주변을 계속 담다 보니 수풀 한켠에 매어있는 누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다. 송아지 티를 갓 벗은 듯한 여리여리한 모습이었는데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밤에 제물로 쓰일 '지태'라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한 직원이 알려주었다. 외연도 당제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2017년, 충남무형문화재 제54호)되어 있기에 연구원에서는 제수 구입 때부터 전부 동행하며 기록에 남긴다고 했다.

분주한 제당을 둘러본 뒤, 전횡장군 사당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서해 여러 섬에서 전횡장군을 수호신으로 모신다는 정보가 있던 터라 관심이 컸다.

당제 준비 과정을 둘러본 뒤 수려한 자연경관 탐방차 산길에 나섰다. 걷기 여행객을 위한 데크길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었지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시에서 둘레길 산책로 정비와 확장을 하려했지만 악성 민원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마을 이장님 설명이다. 아름다운 우리 섬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길을 막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얽힐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었지만 현실은 중장비와 공사자재들이 널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바닷가 쪽 널따란 바위(작은명금-큰명금)에 올라 서해바다의 깊고 푸르름에 탄복하며 바다 밑에 헤엄칠 고기들 건지는 상상에 취해있다가 해지기 전 봉화산을 올라야 한

1. 외연도 전경 2. 전횡장군 사당과 진설된 제물 3. 제물로 바쳐질 '지태' 4. 용왕제, 띠배에도 제물을 태워 멀리 떠나보내며 액운이 떠나가기를 기원한다

다는 재촉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외연도 전체가 조망되고 날씨가 맑을 때는 멀리 어청도 까지 볼 수 있다는 설레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몇 발짝 떼는 순간, 극한의 길다란 것이 스르륵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깜짝놀라 소리치니, 원래 이 산은 뱀이 많아 관광객들이 기겁을 한다는 이장님 말씀에 정상 등정을 포기했다. 몇 년전 문화원장님이 답사차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눈 밑에 상처가 있어 병원 가봤더니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뱀에 물린 것 같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이장님 말씀이 이어졌다. 전엔 뱀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많아졌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외연도 전체조망이라는 큰 꿈은 포기한 채 숙소내 내려와 일찍 잠을 청했다. 밤을 새우려면 일찍 자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에 충실했다. 밤 9시경 깨어, 준비하는 모습부터 기록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어두운 밤길을 서둘렀다.

산제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갈당으로 불리는 산 정상 세 제단에 촛불을 켜고 각각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린다. 외연도 당제는 산제당에서 올리는 산제(노구제라고도 한다)에 이어 서해 바다의 수호신 전횡장군에게 올리는 전횡장군 사당제, 다음 날 바다의 용왕신에게 올리는 용왕제 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산제를 올리러 갈당과 당집을 오가는 동안, 길 옆 ‘김서방 바위’에도 술과 제물을 올렸다.

밤 12시가 되면 징을 세 번 쳐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 곧바로 지태를 도살하는 행위가 시작된다. 지태는 코가 뚫린 중소 중에서, 잡털이 박히지 않은 솟소로 골라야만 한다고 한다. 낮에 본 눈물 머금은 그 솟소를 단단히 사방으로 묶어 매더니, ‘딱’ ‘딱’ 하는 두 번의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소의 정수리를 작은 도끼 같은 특별 제작 도구로 내리친 것이다. 옆으로 쓰러져 네다리를 파르르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선지를 받아내고 해체가 시작되었다. 신우대 이파리가 깔린 산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소 한마리가 해체되고 있었다. 소 머리는 통째로 삶아 제물로 올린다고 한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고 부위별로 삶아지자 마자 지게로 부지런히 날라가며 제물로 바친다. 제물을 올리고 당주는 무릎을 꿇고 술을 올리며 절을 했다. 전횡 장군 뿐 아니라 그 좌우에 당산신위(堂山神位)와 도당신위(都堂神位), 오른쪽 선반에 있는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에도 제물을 올렸다. 분주히 오고가는 제사를 지켜보다보니 2~3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외연도 당제의 특별함은, ‘지태’라고 불리는 산 소를 직접 잡아 제물로 올리는 것과, 한복 치마저고리 세벌을 위패에 올

리는 풍습을 들 수 있다. 전횡장군의 부인과 두 딸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이라 한다. 이튿날 아침, 용왕제가 시작되었다. 당산에서 잡은 쇠고기 덩어리들과 선지를 산아래 까지 날라 제물로 사용했다. 풍물과 함께 산아래 마을로 내려와 골목에 모셔진 골목신에게도 거리제를 지내고 마을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다. 용왕제는 마을 앞 노인복지회관 앞에 제사상을 다시 차리며 시작된다. 당주가 풍어와 뱃길 안전을 기원하는 술과 절을 올리고는 제물을 모조리 한 양동이에 담는다. 양동이에 이미 선지가 절반쯤 차있다. 이 양동이를 들고 방파제에 서더니 바다에 세 번에 쏟아 붓는다. 이내 바닷물이 별정계 물들며 수많은 갈매기가 몰려들었다.

이제 일행은 조그마한 모형 배(띠배)를 배에 싣고 뱃머리에서 간단한 고사를 지낸 후 조금 먼 바다로 나간다. 멀리나가 띠배에 음식을 차려놓고 바다에 띄우며 풍어와 안전을 빌고, 액운을 멀리 떠나보낸다.

용왕제를 끝내고도 다시 마을로 돌아와 큰 팽나무 밑과 마을 샘에서 안당고사를 지내는 것이 제례의 마무리다. 그 때부터 마을 잔치가 시작된다.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썼으니 마을 전체가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외연도에서 전횡장군을 모시는 풍습은 기록상 조선 초·중기 이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¹⁾

4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마을 어른들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마을 전체의 연대의식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외연도 당산제는 충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덕에 시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 받는다. 부족한 부분은 마을 어촌계 기금으로 충당한다. 보령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민속 관광자원으로 보존하려 애쓰고 있다.

외연도의 비경만큼이나 외딴 섬의 독특한 민속이 충분히 가치있게 자리매김 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천은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코로나 정국 탓이기도 하겠지만, 제례에 참여하는 이들 말고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없어 보였다. 각자가 자신의 생업에 매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동백나무 군락으로 유명하고, 섬나라 특유의 상록수 군락이 천연기념물(제136호)로도 지정되어있는 아름다운 섬,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섬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외연도. 천혜 자연의 아름다움과 섬나라의 독특한 민속이 제대로 어우러져 ‘한번쯤 꼭 가야할 섬’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1) 보령 충청수영에서 발견된 「유격장군정덕비(遊擊將軍淸德碑)」는, 임진란에 명나라에서 파병되어 조선수군을 도와준 ‘계금’장군의 치적을 기리는 공덕비로 1598년(선조 31)에 세워졌다. 이 비문에 이미 풍어를 주관하는 신으로 외연도 당제의 주 신으로 모셔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순교성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공세리 성당은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44호이면서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글 김형기 온양문화원



공세리성당은 1895년 6월 (양촌성당, 구합덕성당의 전신)에서 분리 창설되었으며, 공세리란 명칭은 조선시대 충청도 서남부의 조세를 보관하던 공세창(貢稅倉)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충청도 내포(內浦) 지역에 위치한 공세리 일대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기에 이미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존창(李存昌)에 의해 복음이 전래하였다. 이후 박해기를 거치면서도 신앙을 보존하던 이 지역은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에는 양촌본당의 관할 아래 있다가 1895년 6월 드비즈(Devise, 成一論) 신부가 공세리로 부임하면서 본당이 설립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드비즈 신부는 이미 매입한 10칸 정도의 기와집을 개조하여 성당으로 꾸몄고, 1897년 6월에는 다시 3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공세창이 있던 일대를 매입한 다음, 1899년 그 자리에 성당과 사제관을 건립하였다. 또 1905년에는 조성학당(1927년 폐쇄)을 세워 교육 사업에도 앞장서 공세리 발전에 기여 하였다.





한편 1920년대 들어 신자수가 증가하자 기존의 성당으로는 늘어나는 신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드비즈 신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1922년 9월에 현재의 고딕 양식의 서양식 성당과 사제관을 완공하였다. 이후 9대 주임 이인하(李寅夏) 신부는 1958년 초에 강당을 신축하였으며, 1971년 1월에는 13대 주임 김동욱(金東旭) 신부가 성당을 증축하고 별관을 완공하였다. 경내에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3인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429.75m²(130평) 규모의 본당과 사제관, 피정의 집, 회합실 등이 있고, 수백 년 된 느티나무와 각종 수림으로 쌓여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천주교 성지다.

성당 주변으로는 300년이 넘는 고목들과 주변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어 '태극기 휘날리며',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수녀 아가다' 등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CF 촬영 장소가 되었다.

성당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오솔길에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1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을 조성하여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묵상하며 걷는 중요한 길이 되었다.

공세리 성당 입구에는 조선시대 조세로 내었던 곡식을 저장 하였던 조창인 공진창이 있었던 자리가 있다. 공세창은 공진창의 처음 이름이다. 현재의 공세리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마을 앞까지 물이 들어와 바다와 천이 만나는 수로 교통의 요지였다. 이곳에서 충청도

각지에서 온 곡식을 모아 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한양으로 옮겼다. 초기에는 창고 없이 해안 포구에 곡식을 쌓아 두었으나 1523년 중종18년에 80칸의 창고를 마련하고 이름을 '공진창'이라 하였다.

공진창에는 곡식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이 800석인 배 15척과 운반인 720명이 배치되었고, 조창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충청도 도사가 해운판관을 겸임하였고 1762년 영조38년 이후에는 아산 현감이 공진창을 관리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조창 자체가 폐지되어 건물만 남아 있었는데 이후 1897년에 성당으로 개조되었다. 현재 창고지 주변에는 당시 세운 성벽이 남아 있다.

공세리 성당의 역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명래 란 사람과 '이명래 고약'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 상표 출원 제품이기도 하고 당시 대한민국 가정집에 필수 상비약이었던 '이명래 고약'이다.

공세리 성당에 부임해 있었던 에밀드비즈 신부는 공세리 성당 본당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을 지휘하였다. 당시 공세리 성당 건축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에는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를 본 신부님은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종기 치료약(고약)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었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 이명래는 원래 서울에서 천주교를 믿는 신자였지만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자 피난 차 공세리로 와서 에밀드비즈 신부님 옆에서 성당 일을 도와주며 지내다가 고약 만드는 비법을 전수 받은 후 우리나라 민간요법을 첨가하여 고약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해방 이후 가정상비약이었던 '이명래고약'의 시초였다.



달빛과 물빛, 그리고 사람 탐정호 출렁다리

어느 늦가을, 논산 탐정호 일원에서 열린 '탐정호 달빛걷기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내리던 보슬비가 멈추자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달은 점점 물 가까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은 이백이 강물에 일렁거리는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일화가 떠오를 만큼 아름다웠다.

글 박용신 논산문화원





낮에 탐정호 수변데크산책로를 따라 탐정호수변생태공원까지 거닐 때와는 다른 정취를 느꼈다. 낮에 본 탐정호가 도심의 잘 가꾸진 정원이라면 밤에는 시골집 마당처럼 안온했다. 그날 두 개의 달이 뜬 탐정호가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하였다. 달이 떠 있던 자리에 세워지는 출렁다리를 볼 때면 ‘아쉽다’와 ‘궁금하다’는 두 가지 감정이 혼재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여름 한낮에 다리를 걸었다. 함께한 일행에게 뜨거운 날씨에 건자고 한 것이 미안하였지만, 다리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일지 알고 싶었다. 다리 위로 첫발을 디디는 순간 뜨거운 햇살마저 반가웠다. 사방이 물에 둘러싸인 다리 위에서 올려다본 하늘에는 물결치듯 흰 구름이 흘러갔다. 다리의 일부가 철제 메시로 되어 있어 그 구멍으로 바람이 지나면서 다리를 흔들리게 하고 거센 강풍에도 견디게 한다. 다리에 난 구멍과 흔들림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역설적이었다. 구멍 사이로 보이는 물을 뺀히 바라보면 발밑에 바로 물이 있는 듯했다. 다리를 걷는 내내 양옆으로 햇빛에 반짝이던 파란 물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 것이다.

밤이면 출렁다리와 탐정호의 물은 그 자체가 공연장이 된다. 다리에 이만여 개의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되고 음악에 맞춰 다양한 빛깔의 물이 공중에 수놓

는다. 기억 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밤 풍경이 아니라 불꽃놀이 가 터지는 축제장처럼 화려하고 활기차다. 이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다. 그럼에도 탐정호에 달이 뜨고 물에 비친 달을 보면 주위와 상관없이 고요한 기운을 느낀다.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토끼 한 마리가 사는 것처럼.

탐정호에서 본 달빛과 물빛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나 온기를 준다. 최근에 권선옥 원장님께서 은퇴하신 교장 수녀님을 모시고 탐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바람이 불고 제법 쌀쌀하였지만, 수녀님은 원장님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주위의 풍광에 아이처럼 감탄하셨다. 나는 소녀 같은 수녀님과의 인연에 설레면서 내내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출렁다리가 개통한 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중년의 친구들, 어린 자녀와 동반한 부모,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 청춘들 등등이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의 가려진 마스크 위로 행복이 그대로 드러났다.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수상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연꽃 및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충청남도 기념물 제70호인 합덕제는 현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의 소들강문 평야에 있었던 것으로
축조 시기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는 후백제 견훤이 쌓았다는 설,
두 번째는 백제후기인 위덕왕(재위 554~598년) 또는 무왕(재위 600~641년) 때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다.
합덕방죽은 비슷한 백제 때의 김제 벽골제가 직선의 방죽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높이 7~8m, 전체길이 1,771m에 이르며 저수면적은 175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2017년 합덕제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글 강대원 당진문화원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주 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379-9

이용시간 : 하절기(4~10월) 10~18시

동절기(11~3월) 10~17시

(마감 30분 전까지 입장가능)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 설날 및 추석

관람문의 : 041-350-4931~3



충청남도 기념물 제70호인 합덕제는 현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의 소들강문 평야에 있었던 것으로 축조 시기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는 후백제 건국이 쌓았다는 설, 두 번째는 백제 후기인 위덕왕(재위 554~598년) 또는 무왕(재위 600~641년) 때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다. 합덕방죽은 비슷한 백제 때의 김제 벽골제가 직선의 방죽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높이 7~8m, 전체길이 1,771m에 이르며 저수면적은 175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2017년 합덕제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합덕제의 역사를 전승, 계승하고자 2005년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일부 노후화된 시설을 전시실 개편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실시, 지난해 8월 다시 정식 개관하였다. 합덕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한편 보다 짜임새 있는 전시 구성으로 새롭게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관은 크게 '역사를 담다' '지혜를 담다' '문화를 담다' 등으로 구성되어 합덕제의 기원과 유래,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는 자료, 문헌 등을 게시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합덕제

및 구만리보 축조과정 등을 영상과 전보다 더 커진 디오라마(축소 모형) 등을 통해 합덕제 축조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박물관 재개관 후 체험 및 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올해 열린 제24회 전국박물관대회에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와 공헌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앞, 즉 합덕제가 있었던 옛 자리에 연꽃 공원을 조성하여 홍련, 황련, 백련 등 각종 수련과 수생식물들이 식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연꽃은 6월 말부터 피기 시작, 피고지고를 계속하는데 이때에 맞춰 '합덕제 연호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옆에는 5.4ha 규모로 농어촌테마공원이 완공되어 추가정자와 디딜방앗간, 추가체험동, 분수대 등 시설물을 비롯한 다양한 조경시설을 갖춰 시민들의 쉼터는 물론 합덕제 연호문화축제 행사장 등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천년 시간 속의 풍경, 태고사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의 마천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태고사는 해발고도 660m에 위치하고 있다. 대둔산 용마루를 병풍삼아 이룩한 곳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 원효가 12승지의 하나로 꿈을 정도의 명당으로 과거 72칸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다.

글 이 진 금산문화원

대한불교조계종 제6 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인 태고사는 조선 후기 문신 겸 학자이자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공부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우암의 흔적은 태고사 앞의 큰 바위의 붉은색 음각으로 파인 석문(石門)이란 글씨로 남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반기고 있다. 석문을 이루고 있는 바위 틈새의 너비는 채 1미터가 되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의 틈이 태고사의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이래 이 절은 고려 시대 태고화상(太古和尚)이 중창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진묵대사가 재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고 지난 2011년 비적하신 도천스님의 주도 아래 복원공사를 하여 대웅전, 무량수전, 관음전 등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태고사를 처음 찾는 이들은 경사가 완만한 2.6km의 거리를 주차장부터 오르게 된다. 이는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을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너면 숲의 깊고 평온한 냄새가 등산객을 반긴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다 보면 깊지 않은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매료시킨다. 그렇게 십 수분 오르다 보면 본격적인 경사로와 구불거리는 험로에 진입하게 된다. 물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경사가 보통의 산길과 사뭇 다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 굴참나무, 가뭇비나무 등의 장목들이 계곡을 감싸며 하늘로 달리기하듯 치닫은 모습 사이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계곡의 허리춤에 이르게 된다. 아까 전까지 올려다보던 나무들을 인제 내려다 볼 차례가 된 것이다. 내려다보이는 나무의 어깨 위로 수많은 새가 지저귀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모든 생각이 차분해지고 가슴은 고요에 이른다. 어쩌면 태고사는 이미 저 아래부터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 또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높은 곳에 위치한 태고사는 부처의 깨달음을 범인들에게 말하기 위한 장치로 이 험준한 길을 오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생각이 정리될 때쯤 문득 산 까마귀 싸움 소리가 귀를 찌른다. 다시 여정을 시작할 때란 신호이다. 허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처음처럼 걸음을 시작한다. 그렇게 다시 수 십분 정도 걷다 보면, 굽이치는 길모퉁이에 약수터가 자리 잡고 있다. 보통 절 안쪽에 위치하는 약수터가 길가에 버젓이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약수로 목을 축이고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확인하고 길을 재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고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250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침묵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무념의 상태로 오르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바위 앞에 이른다. 우암의 글씨가 새겨진 석문에 도달한 것이다. 좌측에 새겨진 붉은색 석문이란 또렷한 글자를 쉬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좁은 석문을 지나면 좌측에 침묵 계단 우측으론 자연석 계단이 나온다. 어차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으니 당황할 필요 없다. 몇 개의 계단을 오르고 고개를 들면 태고사의 첫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다들 같을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절터를 다지고 절을 지었을까? 실로 수많은 스님의 노고가 경이롭게 느껴질 것이다.

마음에 경이로움을 품고 계단을 오른다. 비탈진 산 사면에 건축되어서 아찔하지만 그렇다고 못 오를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계단 중간쯤 이르게 되면 범종루가 보인다. 절벽 위에 세워진 모습이 실로 놀라운 풍경을 선사한다. 이 세상의 느낌이 아닌 어느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과 마음에 담고 마저 계단을 오른다. 계단의 끝에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대웅전의 앞마당에 도착한 것이다. 대웅전을 뒤로하고 앞을 보면 오대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금산군 진산면과 복수면 일대가 아스라이 펼쳐진다. 원효대사가 태고사를 창건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좋아서 삼 일간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종루로 발길을 돌린다. 저기에 가면 어떤 풍경이 나올까 기대를 하면서 범종루 앞에 당도하면 좌측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비단의 굴곡 같은 산야가 펼쳐지고 우측에는 대웅전과 그 위로 거대한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 산수화처럼 펼쳐진 풍경이 산을 오른 고단함을 말끔히 잊게 할 것이다. 말없이 한참을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마음은 끝없이 비워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귀는 이미 여러 새 울음소리가 가득 찰 것이고 눈은 황홀한 광경 주위 담느라 분주할 것이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운산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태고사, 시간과 튼튼한 다리가 허락된다면 그 긴 역사의 풍경 속으로 걸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백제를 품고 있는 『백제문화단지』

‘백제의 고도 부여’

‘백제의 왕도 부여’

결혼을 하고 처음 내려온 부여에서 나를 설레게 한 것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보인 ‘송국리 선사 취락지’라는 팻말 이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글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곳에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글 **이영미** 부여문화원





시택동네 이사를 하고는 결심 하나를 했다. 한 달에 한 번 유적지 찾아다니기. 첫 번째로 간 곳은 물론 선사취락지가 있는 송국리 그리고 바로 맞은편의 초평리 고인돌. 초봄이라 넓다란 밭 위로 흩어진 거름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조차도 향기로 느껴졌다. 하얗게 핀 냉이꽃의 장관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떠올리게 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 때의 기분은 생생하다.

古都 백제의 고도를 충분히 만족한 곳. 좋았다 마치 고향을 다시 온 것처럼. 그런데 王都 백제의 왕도의 모습은 느낄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말로만, 설화로만 듣는 왕도의 이야기는 갈증을 느끼게 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어김없이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성을 산책하면서 옛이야기를 해 주는걸로 왕도의 면모를 이야기 하면서 씩씩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들은 듣고 걸으며 “참 좋다!”를 연발한다. 나도 그 마음 공감하고 씩씩한 마음을 위로 받는다. 드디어 왕도가 재현된 것이다. 1993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공주 부여 익산이 지정되면서 부여에 백제문화단지가 조성됐다. 사라진 백제, 잃어버린 백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백제의 마지막 왕도인 부여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백제의 역사를 공부 할 수 있는 백제역사문화관, 왕도의 재현으로 그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사비궁이 2010년 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백제는 그렇게 부여에서 재탄생을 한 것이다. 시작에 불과한 이곳에는 하루 종일 보아도 모자랄 백제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능사’이다.

능사는 백제27대 창왕(왕덕왕)이 충북 옥천에 있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위해 지었다는 절이다.

몇 번을 봐도 또 보고 싶은 곳. 단순히 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의 기법이라든지 예술의 완성도라든지 백제 절의 특징인 1탑 1금당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최초로 재현한 삼국시대의 목탑 ‘능사5층목탑’은 능사 목탑지에서 출토된 사리감(舍利龕)의 명문을 통해 건립 연대와 와 조성 배경을 알 수 있어 복원·재현할 수 있었는데 그 웅장하고 고고한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에 더욱 값어치 있는 백제 문화단지. 백제를 알리기 위해 요즘은 많은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여와 백제를 찾아 준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흩어진 삼국 이전의역사도 제대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문화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서천갯벌 보전에 대한 지역과 국가 정책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 세계자연유산 지위에 걸맞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글 김억수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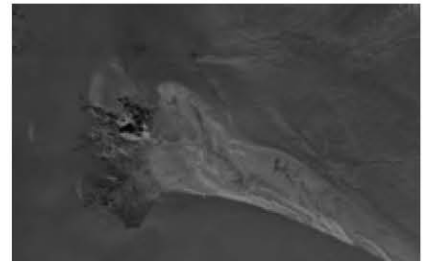
검은머리물떼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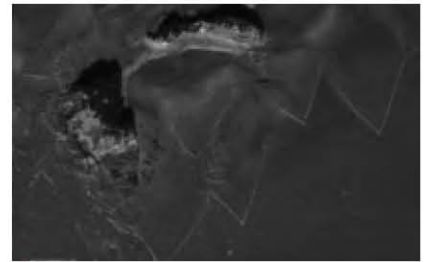
유부도 갯벌



금강하구둑



아소래섬 어살(1967, 항공사진)



쌍도 독살군(1967, 항공사진)

2021년 7월 26일은 서천의 역사적인 날이다.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갯벌(신안, 보성, 고창, 순천)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반갑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반가운 일이 분명함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금강하구 갯벌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면적이 사라졌다. 그리고 금강하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하구(河口)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서천갯벌 보전에 대한 지역과 국가 정책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 세계자연유산 지위에 걸맞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금강하구 생태계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놔둘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서천갯벌이 건강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구가 열려야 한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야 한다. 그래야 갯벌이 숨을 쉬고, 황복, 참게, 뱀장어, 웅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갯벌이 형성되고 그 갯벌에서 다양한 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문화다양성 회복이다. 서천갯벌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왔고, 주민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을 이용해 삶을 유지해 왔다. 자연(생물)과 관련된 주민들의 어업방식, 그 과정에 형성된 전통생태지식, 언어 등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어살(漁簾)의 경우 서천지역 어업 유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어살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서천 연안에 어살과 독살이 만들어 이용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서면 지역의 어살과 독살, 쌍도 독살, 장포리 독살, 장구만과 눈들 어살, 죽산리 독살, 아소래섬 어살 등 전통어업의 흔적과 기억이 아직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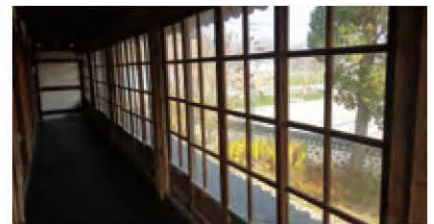
이는 주민들이 바다와 갯벌을 어떻게 이용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은 '살'을 운영했거나 매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릴 적 '살'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던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다. 따라서 하루빨리 그분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해서 우리 지역의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윤남석 가옥

초가집과 2층 한옥이 어우러진 독특한 가옥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에 자리한 고택으로,
충남 민속자료 제18호로 지정되었다.
1,200평에 이르는 널찍한 대지에 안채, 사랑채,
별채, 행랑채 등 6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글 김 진 청양문화원





초가집인 사랑채는 현 주인장인 윤남석(尹男石)의 고조부가 약 200년 전에 지었고, 안채와 별채 등은 1937년에 윤남석의 부친이 지었다. 그중 별채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절충된 가옥은 보기 드문 건축물이라 그 가치가 크다.

가옥 옆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 음식인 견화빵을 만드는 제빵 건물도 있다. 또한 옛 시계 박물관으로 꾸며진 행랑채에는 주인장의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17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골동 시계 760점이 전시되어 있다. 진귀한 시계가 많아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고택에서의 하룻밤 긴 여운으로 남는다.

“윤남석 가옥”은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 한옥에서의 하룻밤이라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한옥스테이로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봄이 되면 마을 진입로 벚꽃길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문객들을 맞는다. 미당1리 마을회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천천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자리해 미당리가 된 고즈넉한 마을

미당리에는 미륵불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다. 마을의 홍수로 인해 미륵불이 유실되었다가 이후 배수공사 과정에서 머리가 발견되어 이에 맞춰 몸체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미래의 부처라는 뜻으로 “항상 서서 깨어있는 부처”를 의미하는 미륵불. 입선(立禪)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공부를 하는 미륵에 담긴 가르침을 받아 미당리1리에서는 해마다 정성을 다해 미륵제를 지낸다.

서해명산 오서산

오서산은 충남 서해안에 우뚝 솟은 산이다. 금북정맥(금강의 북쪽에 위치한 약 280여km의 산줄기로, 태안 안흥진에서 안성 칠장사에 이르는 구간)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서해안의 등대 역할을 하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글 조남민 홍성문화원





오서산은 희한하게도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달리 보인다. 보령쪽에서 보면 오서산은 영락없이 평평한 모습이다. 이를 풍수용어로 토산체(土山體)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는 주로 부농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온다고 한다. 반면 광천쪽에서 보면 삼각형을 이루는 소위 금산체(金山體)의 모습이 나타난다. 금산 주변에서는 큰 부자들이 난다고 하는데 화려했던 광천의 영광을 생각하면 크게 틀린 말도 아니다.

오서산(烏棲山)은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에 오서악(烏棲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는 명산대천을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누어 국가차원의 천제를 올렸다고 한다. 정암사 중수기에 '국내에는 명산이 있으니 동에는 풍악 금강산이요, 서에는 구월산이요, 북에는 묘향산인데, 언제나 서로 보기가 싫은 마음이 없었으니, 이런 곳은 유독 오서산뿐이었다.'라는 재미있는 대목도 나온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토굴을 자락에 깔고 있는 오서산은 또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산이다. 효심스런 딸의 전설이 내려오는 처녀바위, 커다란 바위가 벼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벼섬바위, 백제부흥군의 복신장군이 기거했다는 굴이 있는 선질바위 등 술한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러나 역시 등산로가 일품이다. 오서산은 어느 곳에서 오르든지 간에 일단 줄기차게 올라야 해서 힘이 들지만, 일단 등산로에 들고 보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등산로는 상담 주차장에서 정암사를 거쳐 수많은 계단과 마주하는 코스다. 혹자는 계단이 주는 지루함을 나무라지만,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자연에게 부담을 덜 주는 곳을 부인할 수 없다.

중담에서 오르는 길은 약수터와 산제당을 만날 수 있고, 광성리에서 내원사 계곡으로 오르는 길은 맑은 물과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는 신선한 등산로다.

산꾼들이 좋아하는 금북정맥길도 있는데 신평리 기러기재에서부터 공덕고개, 금자봉을 넘으면 정상에 이르며 이 길 또한 상당한 비경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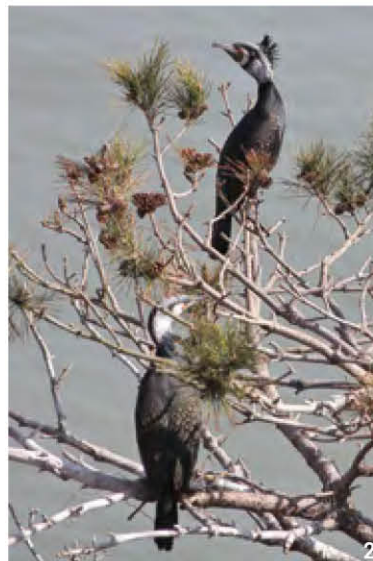
오서산의 정상에 오르면 누구라도, 사방으로 탁 트인 풍광에 감탄사를 연발하기 마련이다. 멀리 서해바다, 당진, 공주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장쾌함에서 얻는 호연지기가 저절로 느껴진다.

요즘은 걷는 것이 대세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산책길을 걷고, 하천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남산, 월산, 용봉산 그리고 마침내 오서산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날 정상에 올라보면, 흥성이 충남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나날이 발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배후에 든든한 오서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칠뱅이섬과 장안사퇴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오랑캐를 물리쳤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작은 섬 7개가 모여 '방이라도' 또는 '방이 칠도'라는 군도를 이루고 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칠뱅이섬' 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큰 섬인 '대뱅이'를 중심으로
'새뱅이', '여뱅이', '수리뱅이', '곶뱅이', '거북뱅이', '말뱅이' 등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글 정지수 태안문화원



1. 대뱅이섬 대나무
2. 대뱅이섬 가마우지
3. 장안사퇴의 가마우지와 갈매기
4. 장안사퇴 항공사진
5. 굴뚝뱅이(연돌도)



칠뱅이섬 인근에는 사리¹⁾ 때 썰물이 나면 바닷속에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장안 사퇴'라 불리는 모래언덕이 있는데,
사리 기간에 2시간 정도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모습을 감
춘다.

처음에는 바다 한가운데 하얀 파도가 부서지며 명주실을 길
게 늘어뜨린 것 같은 모습을 시작으로 바닷물을 가르고 황금
색 모래가 융기하듯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
때 인근에 있는 갈매기와 가마우지가 수없이 모여들어 모래
톱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활동을 한다.

장안 사퇴는 칠뱅이섬을 포함해서 수중으로 총연장이 약 14
km에 걸쳐 형성되어 있고 물이 많이 빠지는 날에는 약 7km 정
도의 모래톱이 수면 위로 나타난다.

이 광경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이다. 태안문화원에서 '태안의 섬'이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원북면에 속해 있는 섬을 촬영하기 위해 학암포항에서 배를
타고 칠뱅이섬을 카메라에 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갈매기 떼가 모여들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1)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멀리 나가는 날



것이 아닌가? 신비로운 모습에 잠시 내 눈을 의심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선장님께 여쭙봤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모래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광경을 처음 목격했을 때 잠시나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이었다고 해도 심한 과장은 아닐 듯 가슴이 뛰었다.

그 후 문화원에서 장안 사퇴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도 있었지만, 바다의 물때, 날씨, 여객용 배의 부재, 접안 승인 문제 등 많은 제약으로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장안 사퇴는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쉽사리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아본다.

이곳 칠뱅이섬은 장안 사퇴라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오랑캐를 막아낸 재미있는 전설도 간직하고 있어 소개해 본다.

『오랑캐를 막아 낸 뱅이섬』

어느 해, 수십 척의 오랑캐 군함이 학ampo 근방으로 쳐들어왔는데, 국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오랑캐를 물리칠 대안이 없어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 수군의 수도 부족했거니와 잘

훈련된 큰 규모의 오랑캐 군에 대항할 여력이 없어 육지로 다가오는 오랑캐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랑캐 군은 점점 학ampo 앞바다까지 다가와 육지의 동태를 살피고 대포를 쏘면서 진격해 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대나무가 무성한 ‘대뱅이’가 ‘굴뚝뱅이’를 불러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니 우리 힘으로 적을 막아 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주위에 있던 섬들도 모두 동참해서 적에게 맞서는 데 힘을 모으자고 외쳤다. 그런데 느닷없이 섬 하나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나도 전투에 끼워달라고 외쳤는데 그 섬이 ‘새뱅이’였다.

일곱 섬은 작전을 짰는데 대 섬은 대나무를 흔들어 많은 군사의 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굴뚝 섬은 굴뚝에서 불꽃을 뿜어 마치 군함이 진격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수레 섬은 군사를 수레에 가득 태우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돌섬은 돌을 적의 함대 쪽으로 날려 총알과 대포가 날아오는 것처럼 만들었다. 또 나머지 섬들도 큰 전함으로 변장하여 적을 위협하였다.

적군은 지금까지 섬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전함이라고 착각하고 함대의 위용에 놀려 육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허겁지겁 도망가게 되었다고 전한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다.

글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리모델링전

원사 얼굴(외관)이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천안시동남구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올해 새 옷을 입었다.

현재의 위치에 있는 원사 건물 역사는 40년이 넘는 건축물이다. 2010년(아우내문화원 시절)에 한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강의실 및 외관 등의 기능보강을 하였다. 그렇지만, 12년 동안에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문화원 내부·외부의 보수 공사가 시급하게 되었다.



리모델링후



크고 작은 변화를 주면서,
이전보다 지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



먼저,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문화원 일대 주변이 하절기 홍수피해를 2차례(2017년 8월, 2020년 7월)나 겪은 점이다. 지역 내에서 지반이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하여 문화원사 1층과 주변 상가 및 민가들이 1M정도 침수되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설과 공간의 기능 등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된 점도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이 이전보다 문화원을 찾는 빈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높아지는 문화적 소양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영위 하려는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화의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문화원 새로운 간판! 멋진 글씨체가! LED조명까지!

새로운 외관 판넬 시공과 함께 기존의 때 묵은 외부 간판도 철거해 버렸다.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도 않았을 뿐 더러, 조명시설이 전무하여 어두워지면 문화원 건물인지도 모를 정도였고, 주변상가들에 비해 어둑어둑한 원사분위기가 가장 큰 미관상의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사를 계기로 前 천안시의원 및 서예가인 취송 김진상 선생께서 천안시동남구문화원 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재능 기부해 주셨다. 이 글씨체로 간판을 만들고, 주변 어디

에서 원사를 찾더라도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설치를 완료하였다. 게다가 LED조명으로 야간에도 은은한 건물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한결 나아진 원사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사 내부의 모든 공간을 밝고 쾌적한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하였다. 눈의 피로도도 낮추고, 밝은 조명도(LUX)가 장점인데, 이전의 구형 형광등의 단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활동을 하는 수강생(동아리원) 및 방문객들에게 아늑한 실내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문화원! 청정환기시스템과 강화마루바닥!

강당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신체부위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빈번한 곳이다. 그동안 강당 바닥은 시멘트바닥이었다. 특히나 60세 이상 다수의 어르신들께서 무릎과 관절의 부상 방지를 위해 쿠션이 있는 마루바닥 교체를 장기적으로 건의하였고, 강당의 모든 바닥을 강화마루로 시공하였다. 색상도 이전보다 밝은 색상으로 변경하여 공간의 분위기도 매우 밝아졌다.

또, 최근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심해지는 날씨와 코로나감염증19으로 인한 내부공간의 청정 환기 문제도 대두되어 왔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모든 공간에 청정환기시스템을 시공하여 창문을 열지 않아도 쾌적하고, 신선한 내부공기를 조성하여 문화원을 출입하는 지역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이처럼 문화원 내·외부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면서, 이전보다 지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관계자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의 첫발을 내딛게 해준 충청남도연합회장님과 연합회 직원들, 공사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품안에 담을 수 있는 동남구문화원으로 발돋움 하겠다.



푸드테라피 강의 하는 모습

푸드테라피 ‘요밀조밀’

글 최은지 천안서북구문화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오래 지속될 줄 몰랐으며, 활동적이지 않은 나조차도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약속 또한 핑계 삼아 미루고 취미마저 없어지고 문화생활은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서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요리관련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다.

2021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푸드테라피 ‘요밀조밀’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답답함을 해소 시켜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무더웠던 지난 8월부터 음식재료로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푸드테라피 강의와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는 의미의 전통 떡과 식혜 만들기 공방도 체험했다.

그중에 푸드테라피는 음식재료를 활용하여 그림그리기, 표현하기와 같은 조형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한다. 표현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자아성찰과 타인과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강의였다. 코로나시대에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수강생들의 우울감과 문화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강점은 음식이라는 일상에서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며, 어렸을 적 가정수업과 같은 동심도 자극하였다. 처음엔 다소 생소



푸드테라피 실습, 설탕과 커피가루로 표현하기 실습



떡공방 체험,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구운 떡



푸드테라피는 음식재료를
활용하여 그림그리기, 표현하기와 같은
조형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한다



하고 머뭇거리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즐겁게 수업하였다.

본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말하기 어려워 부분은 푸드테라피를 통해 창작하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수강생들 만족도가 높았다.

같이 진행한 떡 공방 체험교실도 반응이 좋았다. 요즘 답례품으로 떡을 사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옛날의 정을 느끼기엔 어렵다. 그렇다고 직접 만들기엔 조리기구와 재료의 한계 때문에 어려우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만들 수 없다.

공방은 조리기구와 재료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매우 만족했다. 또한 집에서 조리하는 방법과 보리, 찹쌀가루 등 재료의 다양한 사용법도 공유했다. 수강생들은 실생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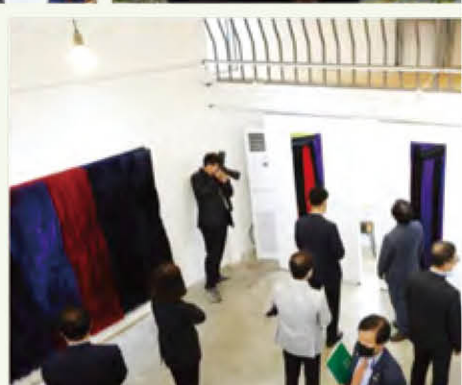
유용한 정보에 매우 흥미롭게 경청했다. 요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수강생들과 서로 조리법, 실패경험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푸드테라피라는 조금 낯선 이색강의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떡 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응원을 많이 받았고 나 또한 너무나 즐거웠다.

모든 이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답답하고 수업을 듣고 싶어도 감염예방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한다. 진행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에 나 또한 아쉬웠다. 모두가 힘들었던 올 한해 내년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고 서로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고 싶다.

예술에 스며들다, 공주갤러리주간

글 정지은 공주문화원





“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모색하는 예술가들이
공주시에 모여 예술의 가능성과
비전을 공동으로 실험하고 제시한 ...

도시가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건 도시환경, 구조, 인프라, 구
성원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공주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
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미술, 향토, 음악적 색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며 공주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공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했던 문화원 행사 하나
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문화원을 비롯하여 공
주 원도심에 자리한 네 개의 전시공간에서 <공주갤러리주간
사업>이 펼쳐졌다. 한마디로 ‘공주에 예술이 스며들었다’라
고 표현하고 싶다.

공주갤러리주간사업은 공주지역의 민간 갤러리와 공공기관
이 협업하여 각자의 주제에 맞는 전시를 기획, 개최함으로써
관내 문화예술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잠재적 문화수요자와 생
산자 발굴,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문
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MADE IN_Gongju Art Project’라는 주제로 펼쳐진 행사는
공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물론 공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모색하는 예술가들이 공주시

에 모여 예술의 가능성과 비전을 공동으로 실험하고 제시한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문화원에서는 ‘한국 이삼평 도자 展’, 갤러리 쉬갈에서
대한민국 목공예명장 1호 유석근 초대전 ‘반盤’, 대통길 작은
미술관에서 박동윤 개인전 ‘애정이 깃든 사물들’, 이미정갤러
리에서 류동현 개인전 ‘다시 오다’, 공주문화예술촌에서 입주
작가들의 기획전 ‘점으로부터’와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경험
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가 열려 참여공간을 하나의 관람 동
선으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과 자유로운 갤러
리 투어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전시 관람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해 온라인 공간에서도 전시내용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지역 예술가들이 공주 원도심에서 활동해 온 갤러리들과 함
께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시민과 방문객들이 문화예술의 도시 공주를 느낄 수 있는 소
중한 시간이었다.

까잇거, 나도 이제 영화감독!

글 김명희 보령문화원





자연스런 일상 동영상 제작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인생 2막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



예전과는 달리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의 모습을 벗어나 은퇴 이후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지역 보령은 노인인구 비율이 2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역 중 하나인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지역 어르신들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신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령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공모하여 『까잇거, 나도 이제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막례 어르신처럼 자연스런 일상 동영상 제작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인생 2막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무한도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어렵게 생각하던 유튜브 채널과 영상편집을 전문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할 수 있어서 대호평이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화와 문자, 카톡 사용 정도로 한정되어 있던 휴대폰으로 기초적 동영상 촬영·편집 기법까지 차근차근 익혀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문화원 옆 동네공원을 시작으로 각종 회귀 수목으로 유명한 천리포 수목원에서의 현장 수업을 통해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려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기까지 크리에이터 전 과정을 함께 해 본 즐겁고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특히, 현장실습 과정으로 찾았던 서산문화원 내 위치한 서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 체험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방송국 시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방송 전문가가 된 듯했다는 말씀이 많았다.

전문 영상제작자인 서정호 선생님의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1기 13명, 2기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종강식 때 졸업작품 시사회를 통해 우수 작품에 대한 푸짐한 시상도 곁들여져 서로의 작품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의 향연이 펼쳐졌다.

수업 첫날 만났을 때에 비해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변신한 어르신들을 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모습에서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노쇠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문화원 존재에 대한 사회적 책무란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위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까잇거, 나도 이제 영화감독』 팀의 활발한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1. 달그락 드라이브 인 콘서트 2. 달그락 드라이브 인 콘서트중 오세현 아산시장 색소폰 연주 3. 육중완밴드 초청공연
4. 콘서트 중간 코로나 방역 소독 실시 5. 달그락 드라이브 인 콘서트

‘달그락 Drive in concert’ 성황리 개최

글 이지윤 온양문화원

2019년 8월 달그락 Rock band festival을 시작으로 올해 2회 달그락 Drive in concert를 10월 30일 오후 6시 곡교천 야영장 특설무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 속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웠

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이 마비되어 콘서트 장소인 곡교천변이 범람하는 등 천재지변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어 행사가 취소되었다.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 팀들이 모여
꿈과 끼를 발산하는 페스티벌로 코로나 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위드 코로나 시대(일상회복)를 맞아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달그락 Drive in concert는 충청남도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 팀들이 모여 꿈과 끼를 발산하는 페스티벌로 코로나 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진행한 희망 콘서트이다.

이 행사는 충청남도도와 아산시가 주최하고 온양문화원과 아산시밴드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충남 최초로 '힘을 내요 아산! 스페셜 드라이브 인 콘서트'란 슬로건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함께 무대공연을 비대면 상황 속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자동차에 앉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맘카페 및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선착순 차량 100대를 예약으로 조기 마감됐으나, 지난 29~30일 이틀간 무대준비 및 사전 리허설 등 주말을 맞아 곡교천 둘레길을 찾았던 시민들의 발길까지 이어지며 이날 3시간 30분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기에 충분한 '열광의 도가니'였다.

SBS 공채 8기 개그맨 최기정씨가 사회를 맡고 노브레인 밴드의 초청 공연(개막)으로 흥을 돋운 뒤, 개회식 및 △레드브릭스(hysteria, wiwalavida) △거북선(모나리자, 챔피언) △고재규(누구없소, 기타로 오토바이타자) △퀸(시작, we got the beat) △다커스(밤이 깊었네, 좋다) 등 아산에서 활동중인 아마추어 밴드 공연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외부 초청 공연으로 천안 '허니브라운'(vivid, 걱정말아요 그대)과 예산 '시네마'(아름다운 강산, 대한이 살았다) 밴드의 공연과 함께 폐막으로 대망을 장식한 육중완 밴드가 약 40여분 그동안 쌓였

던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선보여 성황 속 가을밤을 뜨겁게 수놓았다.

또한, 차량 배치 및 방역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와 따뜻한 차 대접 및 행사 보조에 따사로 봉사단의 활동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각 밴드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공연 중 거북선 밴드의 연주로 오세현 아산시장은 무대에 올라 '님은 먼곳에'란 곡에 맞춰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는 등 달그락 콘서트의 에피소드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2019년 신청호에서 열린 제1회 달그락 콘서트에서 다음 행사에 꼭 "악기를 연주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아산시의 대표적 정책인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바쁜 와중에 연습을 하여 깜짝 공연으로 행사의 퀄리티를 높여 주게 되었다.

자동차 라이트를 통해 음악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진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조등과 깜빡이 등 다양한 라이트가 조화롭게 공연장의 밤을 빛내주어 뮤지션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었다.

이번 달그락 Drive in concert를 통해 오랜 집콕 생활에 지쳐버린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좋은 음악과 힐링하는 값진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 행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한 가지 팁! 유튜브에서 '제2회 달그락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검색하면 녹화된 방송을 볼 수 있다.

스산 根草Go 짚풀공예

글 이연주 서산문화원



“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것을 다시 느껴보기 위한 짚풀공예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고령시대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서산문화원은 2021년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짚풀공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나라는 약 4,000여년 전부터 벼농사를 지어 왔으며 농
사를 짓고 나서 얻은 벼짚은 농기구, 건축자재, 의류(모자, 옷,
신발), 그릇, 그리고 배의 자재로 사용되어왔다. 그 외 마을 축
제나 의례에도 자주 사용되어 농가생활의 주요 역할을 하였
다. 벼짚 사용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어 전해지고 있지
만, 산업화의 시작으로 그 사용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과거의
것으로 굳혀지고 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것을 다시 느껴보기 위한
짚풀공예의 첫 수업은 새끼꼬기였다. 가늘고 고르게 새끼를
꼬는 일은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작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두손이 아려오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의 새끼들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노력
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

어르신들은 이번 짚풀공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예부터 내
려오는 생활용품(벽구리, 도투마리, 계란꾸러미, 짚방석, 닭둥우리 등)뿐만
아니라 변형한 창작물(꽃병, 과일바구니, 화분 등)까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교육내내 벼짚과 관련된 어린시
절 이야기들을 꺼내보며 공감하였고 한번 더 추억하고 기억
하게 되었다며 담담히 새끼를 꼬곤하였다. 한 참여자 어르신
은 ‘짚풀공예 수업이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신청했다. 하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너무 가서 손 껍질이 다 벗겨졌다. 나중
에는 요령이 생겨 손가락에 코팅된 장갑을 끼며 한점 한점 완
성해 나갔다’라며 짚풀공예에 대한 열정을 보이시기도 하
였다.

완성된 약 65개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프로
그램을 끝마쳤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짚풀공예를 함께 즐겨
주고 추억해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관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었다. 이번 서산문화원이 진행
했던 짚풀공예를 넘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활발한 보급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
길 바란다.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시(詩)로 물든 황금빛 인생’

글 김창숙 논산문화원

점점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에 도전하는 607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의 일상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화원으로서 고민이 깊어질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모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논산문화원이 선정되면서 문을 연 프로그램이 ‘시(詩)로 물든 황금빛 인생’이다.

시 감상부터 창작, 낭송 과정을 한 프로그램에 담아서였는지

모집할 때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그 열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수강 기간 내내 이어졌다. 무더운 여름의 햇볕이나 비 오는 날씨에도 꺾이지 않고 봄, 여름, 가을을 지나 16회의 시 창작 수업과 8회의 시 낭송 수업, 시화전 전시를 거쳐 자작시 낭송 발표회까지 계속되었다.

수강생 각자의 인생을 직접 시에 담아 보고 완성된 시를 스튜디오에서 영상으로 녹화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의 한 과정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결같이 부끄러워 자신이



“

각자의 인생을 담은 시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없다고 말씀하시다가도 막상 녹화가 시작되면 프로 낭송가로 변신하는 모습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면 얼마든지 잘 해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에서 기획한 것이 11월 30일 논산문화원에서 열린 ‘시(詩)로 물든 황금빛 인생 수강생 어르신들의 자작시 낭송 발표회’이다. 시낭송 수업을 지도해 주신 신은겸님 사회로 시작된 발표회에서 모든 수강생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시를 직접 낭송하였다. 각자의 인생을 담은 시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자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맞게 새로운 도전을 멋지게 마침표를 찍은 수강생 어르신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논산문화원은 수강생 어르신들이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이어나갈 또 다른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2021 당진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발표회’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화합 및 활동력 강화의 계기 마련

글 강대원 당진문화원



“
움츠려들었던 동아리들이 활짝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뜻 깊은 순간
”

2021년 11월 1일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방역지침에 의해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뒤늦게나마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공연이나 탐방 또는 500명 이하 행사나 축제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당진문화원에서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멈췄던 당진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발표회를 추진, 지난 11월 25일(목)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오후 7시부터 9경까지 진행하였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발표회는 15개의 공연팀과 4개의 전시팀이 참여하여 단 하루지만 동아리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당진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많은 활동의 제약이 있었다. 중앙 차원의 방역지침과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세에 따라 센터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관, 재개관을 반복했고 이에 따라 동아리들 역시 모임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올해 새해가 밝았으나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기대와 달리 사라지지 않았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힘든 시간은 더 길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날아든 희소식. 각 국의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문을 닫았던 나라들이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일부 제한적 개방을 시작했고 이러한 기조는 국내에도 발 빠른 행정적 검토로 이어져 11월 1일자로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다. 정부 발표 전부터 한 가닥 희망을 안고 D-Day를 11월 25일로 잡고 동아리들과 일정을 조율하며 발표회 준비를 해왔는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발표의 일정과 계획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그 동안 동아리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관계로 공연 및 전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동아리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 2020~21년 당진생활문화센터에 참여 신청을 한 동아리가 4~50여개 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대에 서거나, 전시에 참여한 팀이 불과 절반 정도인 19개 동아리 밖에 안 되었다.

비록 전체 동아리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무대에 서지 못한 일부 동아리 회원들은 관객으로 동참하여 응원과 박수를 통해 나름대로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번 당진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단 하루, 몇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동안 움츠려들었던 동아리들이 활짝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뜻 깊은 순간이었다.

남일면 비석제

글 김소연 금산문화원





“
비석제의 의미는
스승의 아름다운 행의(行誼)를
기릴 목적으로 제향을 올리는 ...
”

지난 5월, 금산문화원에서는 '비석제'를 스승의 날에 맞춰 새롭게 시작하였다.

비석제는 고인이 되신 스승의 학덕을 흠모칭송하고 추모하는 제향을 마친 뒤에는 모든 문생들과 추모객이 한자리에 모여 으레 시연(試演)을 개최하여 저마다 스승을 칭송하는 멋들어진 한시를 지어 평소 갈고 닦은 재주를 선보인 제향과 문화가 함께하는 행사였다.

비석제가 열리는 날은 비단 문인뿐만 아니라 시문을 아는 주변의 선비들, 지역민들, 군수까지 기꺼이 동참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비석제가 열리는 날은 문생계마다 통돼지를 잡고 푸짐하게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잔치를 베풀었었다.

금산의 비석제가 흥미로운 것은 비석제의 제향일은 스승의 기일(忌日)이나 생일과는 무관하게 음력 3,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비석제의 의미는 스승의 아름다운 행의

(行誼)를 기릴 목적으로 제향을 올리는 만큼 가급적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시기가 농번기와 중복되지 않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제사 후에 봄놀이를 겸하여 베풀어지는 주연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전통을 고려하여 금산문화원에서는 5월 15일(음력 4월) 스승의 날에 비석제를 진행을 하였다. 전통을 지켜나가며 여러 사람을 배려하였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함도 있었고, 스승의 날에 이러한 옛 선조들의 스승과 제자의 마음가짐을 후대에 알리고자 함도 있었다.

스승을 행의(行誼)를 기림과 동시에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진행되었던 비석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스승에 대한 공경과 웃어른에 대한 '효'의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행사였다.



1. 개막식 2. 작품설명-남농 허건 '부여소견' 3. 청전 이상범 '백마강상 백제여적'

제8회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백마강상 백제여적(白馬江上 百濟餘蹟)』

글 이미영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원장 정찬국)은 제67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하여 제8회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백마강상(白馬江上) 백제여적(百濟餘蹟)'을 개최하였다.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연구와 집필을 위하여 평생 수집해온 서화 500여 점과 도서 1만여 권을 수 차례에 걸쳐 부여군에 기증해줌으로써 지난



유홍준 교수님의 애장품은 모두 수준 높은 작품으로
백마강에 남아 있는 백제의 아름다운 자취는
관람객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2016년부터 열리고 있고 이번 전시는 2021년 9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부여문화원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열리는 데 이번 기증 유물전은 현암 정성원의 <백제고도 부여 8경첩>, 고암 이응노의 <낙화암(落花岩)>, 운보 김기창의 <낙화암(落花岩)>, 운정 김종필의 <규암 풍경>, <풍년>과 금년 부여군이 구입한 청전 이상범의 <백마강상 백제여적(白馬江上 百濟餘蹟)> 등 근현대 화가들이 부여 백마강을 주제로 그린 귀중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백마강상 백제여적(白馬江上 百濟餘蹟)>은 청전 이상범이 30세 때 그린 초기 대표작으로 '진경산수화 기법'으로 그린 대작이라는 점에서 한국 근대미술사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청전은 공주 출신의 작가로 1936년 동아일보 재직 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으로 유명하며, 근대 한국화의 10대가, 6대가로 꼽힌다.

또 이번 전시에는 부여가 고향인 임옥상 화가가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낸 <부여 부산(浮山)의 동매(冬梅)> 대작을 부여군에 기증하므로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었고, 그와 함께 김정현의 <산수문전(山水文廟)> 2점, 이종구의 <낙화암>, 이호신의 <부여 백마강 낙화암>·<백제의 숨결>·<백제금동대향로의 노래> 등 유홍준 교수와 친분 있는 화가들이 그린 부여와 관련된 귀중한 작품을 부여군에 기증하여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남농 허건의 <부여 소견(扶餘所見)>(부국문화재단 소장)과 이종구(잡자는 부처-사랑나무)(개인소장)가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전시회가 되고 있다. 또 유홍준 교수가 직접 부여의 백마강 풍경을 그린 부채 그림 4점도 함께 전시되어 선보였다.

8번째 전시회를 갖는 유홍준 교수는 “조선 시대에 부여를 그린 그림은 단릉 이윤영의 <고란사도>, 겸재 정선의 <임천 고암>, 기야 이방운의 <가림관도> 등 3점뿐이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 명망 있는 화가들이 백마강 낙화암을 다수 그렸는데 이것은 부여가 한국인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부여를 그린 그림이 한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전시를 준비한 소감을 합죽선에 <방(篋) 남농 허건-부여소견>을 그리고 “백마강, 낙화암, 고란사, 백화정, 수북정 그리고 뚝단배 몇 척은 백제의 향기를 전하는 유적으로 이백년 전의 청전, 팔십년 전 남농, 육십년 전 고암, 사십년 전 운보, 역대 한국 화가마다 작품을 남겼다”라고 기록하였다.

한편 전시회를 주최한 박정현 군수는 “유홍준 교수님의 애장품은 모두 수준 높은 작품으로 백마강에 남아 있는 백제의 아름다운 자취는 관람객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며 “가을날 산책과도 같은 전시회에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개막 인사를 전하고 전시회를 주관한 정찬국 부여문화원장은 “백제와 부여에 대한 사랑으로 매년 새로운 전시를 열 수 있도록 소중한 작품을 기증해주신 유홍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하고, 이렇게 부여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많은 분들이 관람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여문화원은 이번 전시를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유홍준 교수가 직접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온라인 관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감상할 수 있게하였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전시를 마무리 하고 있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무사안녕 기원”

글 김진 청양문화원

장승대제, 마을장승제, 장승 깎기 시연 등
올해로 스물두 돌을 맞은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단풍으로 물든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지난 11월 6일 열렸다. 매년 벚꽃이 피는 계절에 개최하던 장승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지난해는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는 11월로 개최시기를 늦추고 행사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해 열게 되었다.
장승문화축제는 칠갑산 산신각에서 새벽 5시 30분 봉행한

산신제를 시작으로 장승대제, 마을장승제, 장승조각가 초청 시연을 통해 지역향토축제의 의미를 살리는데 치중했다. 또 전국 장승조각가들의 색다른 시연을 통해 흥미로운 볼거리도 제공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소독, 발열체크, 안심스티커 부착과 안심콜을 통한 출입기록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축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1,2,3. 장승대제

“
10개 읍면 제관 추천을 받아
국태민안과 코로나중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

장승대제는 군민화합과 주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하고자 10개 읍면 제관 추천을 받아 국태민안과 코로나중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거행했다.

초현관은 김돈곤 군수, 아현관 임호빈 문화원장, 종현관은 군의장님이 제사장으로 제를 올렸다. 정산면 송학리·용두리·천장리와 대치면 대치리·농소리 등 5개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장승제는 각 마을의 장승 한 쌍을 현장에서 제작해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했으며 전국의 전통 장승조각가 14명을 초청, 전통장승을 제작하는 “장승조각가 장승 깎기” 시연회를 열었다.

청양칠갑산장승축제는 국내 최다자료를 보유한 칠갑산장승공원에서 매년 장승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축제 때마다 3만 명 이상 다녀갈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임호빈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가 축소 진행돼 아쉬움은 남지만 칠갑산 장승의 특색을 살린 지역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다양한 체험과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전통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 전국장승조각가 초청시연 5,6. 마을장승제시연



어르신 합동자서전 발간사업

글 정혜옥 서천문화원



서천에서 울고 웃고 사랑했던 지역 어르신들의 지난 이야기와 생생한 삶을 책으로 엮어 내는 어르신 자서전 발간사업은 「2014 고난의길 보람의길」로 시작되어 올해 세 번째로 「2021 고난의길 보람의길」을 발간했다.

먼저 집필진을 선정하고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본 사업의 대상자인 어르신 13분을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어렵고 평범했던 과거에 대해 회상하거나 돌이켜 보는 일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대상자 선정작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

진의 진심어린 마음을 접한 어르신들의 참여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어 본 지면을 통해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집필진분들이 어르신 한분 한분을 수차례 찾아 이야기를 듣고 글과 카메라에 어르신들의 흔적을 담으며 뜨거운 여름부터 두 번의 계절을 보낸 후에 「2021 고난의길 보람의길」은 발간되었다.

서천문화원에서는 자녀들의 편지와 어르신들의 사진을 편집하여 액자로 제작하고 어르신 영상을 보며 자서전 발간을 축하

“
 어르신 자서전 발간사업을
 우리 주변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인해
 잔잔한 감동과 뿌듯함으로 기억된다
 ”



하하는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 코로나로 한 번의 연기 끝에 12월 11일에 서천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어르신들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추억영상을 시작으로 축사와 어르신 대표 및 집필진 대표의 소감발표, 선무용단의 축하공연, 자서전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수정한 어르신 추억영상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어르신 대표로 인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신 이금순 어머니를 보며 웃었다. 집필진 대표로 소감발표를 해주신 구민숙 선생님의 ‘아버지께 떡갈비를 사주기로 했던 일을 못 지켜 후회로 남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참아온 눈물이 봇물처럼 터지기도 했다.

이처럼 어르신 자서전 발간사업은 우리 주변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인해 잔잔한 감동과 뿌듯함으로 기억된다. 자서전 발간은 단순히 한분 한분의 인생을 가벼이 담아내는 작업이 아닌 우리 근대사의 한 장면이면서 개인의 긴 인생사가 담긴 사명이면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는 작업이어서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도 거르지 않고 어르신 자서전 발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과 기억을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아쉬움은 다음 사업을 위한 원동력으로 더 내실있는 어르신 자서전 발간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통혼례식 시간여행 속으로~~

글 김숙희 홍성문화원





시간에 쫓기는 예식장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하여 홍성문화원은 요즘 보기 힘든 전통혼례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겨울로 깊어가는 지난달 11월 28일 일요일 이른 아침 7시 홍성문화원은 모든 직원들이 이른 출근을 해 분주하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전통혼례식을 치르는 날이었다.

조선시대는 남녀 구별이 엄격한 유교 사회로 중매결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중매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년 월, 일, 시간을 적은 사주단자로 궁합을 맞추고, 혼사가 정해지면 혼서지와 예물을 담은 납폐함을 보내 약혼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문화를 볼 수가 없고 시간에 쫓기는 예식장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하여 홍성문화원은 요즘 보기 힘든 전통혼례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통혼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혼례장 준비를 시작했다. 초례상은 동서로 향하게 설치하고 상 위에는 촛대 한쌍, 소나무와 대나무를 꽂은 병, 쌀 두 그릇, 밤, 대추, 곶감, 풀, 솜, 색실을 놓고, 닭 한 쌍도 보자기에 싸서 놓았다. 쌀은 생명, 밤은 건강, 대추는 장수, 닭은 다산, 송죽은 절개, 촛불은 의례를 상징하며 물을 담은 세숫대야 2개와 수건, 술상도 2개 준비됐다. 시집가는 날 '꽃가마 행렬 연출'을 위한 꽃가마도 준비되고 신랑 신부의 전통혼례 의상이 모두 준비됐다.

꽃가마를 들고 가는 가마꾼들도 옛날전통 복장인 민복 의상을 입고 긴장한 청년들과 나무 기러기를 들고 신랑을 인도할 기력아범도 옛날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들고 가는 기력아범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러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을 그 짝과 함께 한다고 한다. 기러기는 과거로부터 백년해로와 정절의 의미로 쓰여 전통혼례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다. 기력 아범은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드디어 전통혼례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풍물소리에 맞춰 신랑이 가마에 오르고 청사초롱을 든 초롱동인들이 앞장서고 기력아범이 그 뒤를 따라 길을 인도해 주는 대로 가마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부도 연지끈지 찢고 수줍게 얼굴을 가리고 꽃가마를 타고 전통혼례식장으로 들어섰다.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들이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겠음을 약속하며, 신랑이 기러기를 놓고 절을 하는 '전안례'가 시작되고 신랑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세숫대야에 손을 씻는 의식으로 예전에는 중매로 혼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제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을 보며 서로 절하고 인사하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교배례' 후에 신랑신부가 서로 잔을 주고받는 예로 처음에는 술잔에 술을 따르고 다음에는 표주박에 따라 마시며 백년가약의 혼인을 서약하는 '합근례'가 진행됐다.

전통혼례의식이 한참 무르익어 국악민요 '사랑가'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다산을 상징하는 초례상위의 닭을 날린 후에 신랑은 신부를 업고 행진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신혼부부가 탄생 됐다.

옛날 전통혼례를 치르던 시절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 한 느낌에 모두 감동하며 신랑신부를 축하해주며 홍성문화원에서 의 전통혼례식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초례상에 차려진 의미처럼 두 사람이 백년해로하길 바라며 준비와 진행으로 힘은 들었지만 행복해 하는 기러기 같은 신혼부부를 보며 겨울이 아닌 항상 따스하고 온화한 봄날 같은 날만 있기를 바래본다.



첫 프로젝트 ; 옛스러움을 밟다 땅.짚.다

글 홍성희 예산문화원

지역문화인력으로써 주어진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게 좋을까 고민으로 시작했다. 지역문화인력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나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우리 아이라면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 등 고민 끝에 전통문화에 접하게 됐다.
전통문화, 그 중 짚공예가 우리지역에 현존한다. ‘짚’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나는 ‘짚신’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짚

신’관련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우리지역의 현존하는 전통문화인 짚공예와 짚신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공통점. ‘짚’!!!! Destiny..... 이런 걸 운명이라 하나보다.
사업명도 생각보다 쉽게 정할 수 있었다. 짚신을 신고 땅을 걷는다 또는 옛것(짚신)으로 땅을 짚는다는 뜻으로 「옛스러움을 밟다 땅.짚.다」라 정했다. 사업명도 의미가 담기면서 느낌 있게 잘 지어졌다고 나 스스로 칭찬도 해가며 나의 프로젝트 첫 기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

짚신을 신고 땅을 걷는다
또는 옛것(짚신)으로
땅을 짚는다는 뜻으로 ...

”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는 코시국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안되는 일상들, 아이들의 수업조차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일상들 속에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막막함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 소규모로 진행했다.

예산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강좌 운영, 휘호대회 등 매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평균 연령대가 높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려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했다. 예산문화원 홈페이지 이외에 어떤 홍보 방법이 있을까? 신문 광고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 광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사업비가 있고 소규모의 행사라 계획 대비 홍보비에 많은 비용을 계획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대안은 하나였다. 우리지역 내 활발히 운영되는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자!! 나조차도 그 카페에서 얻는 정보가 많다. 나도 이곳에 정보를 알리며 홍보를 한다면 사전 예약쯤이야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내 예상은 적중했다. 카페 내 지역 정보를 알리는 게시판에 글을 업로드하여 홍보하는 것

만으로도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고 글업로드 1~2일만에 선착순 마감이라는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예산문화원을 알리기에다 괜찮은 홍보였다고 생각한다.

카페 내에 활동하는 연령대가 20~50대까지 다양하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초등학생 아이들이어서 우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참여연령대가 가장 낮은 사업이었다. 프로젝트 자체가 초등학생 아이들에 맞춰 짚신키트도 제작하여 진행했지만, 처음 접해보는 전통 자연소재를 능숙히 다룰 수는 없었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체험을 완료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초등학생아이를 모집했지만 온 가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에 임해주었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 및 마무리가 되었다.

우리지역에 문화원이 존재와 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매체로 다가가고 정보를 알리는 작은 힘이 된 것 같아 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시간이고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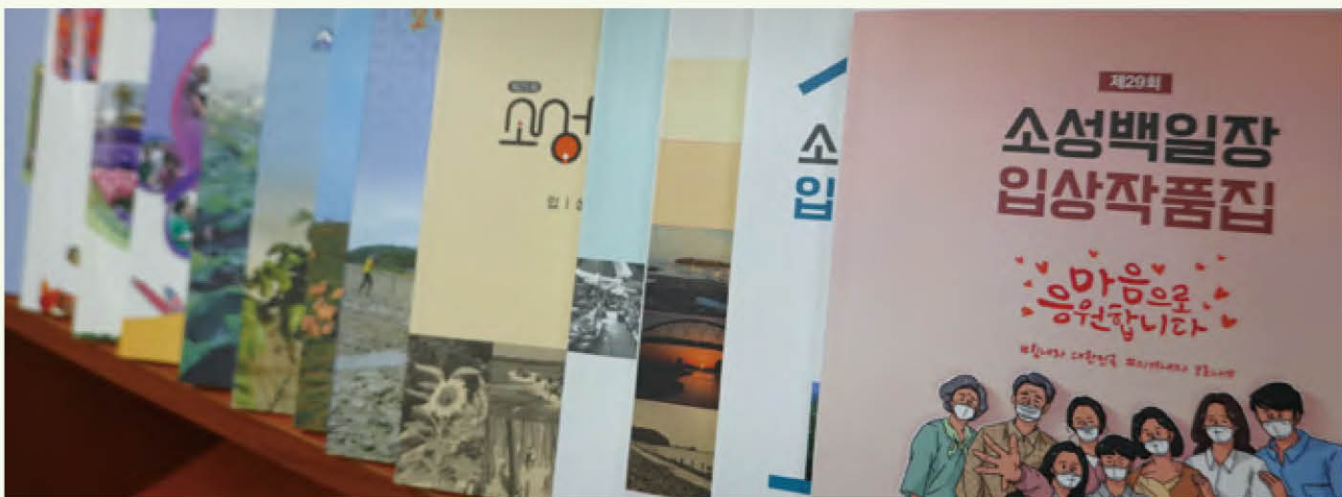
30회를 맞이한 소성백일장

글 조지현 태안문화원

“1992년 봄별이 따사로운 아침, 태안군 각 학교 교가에 빠지지 않는 상징, ‘백화산’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른다. 한 기슭에 자리 잡고 앉아 나눠 준 원고지에 정성껏 무언갈 적어 내려가며 어떤 학생들은 소곤소곤, 다른 학생들은 연필 권 손이 아릴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원고지를 건넸다는 말에 한순간 수험장 같던 그곳은 소란스러워진다.”
이 모습은 태안문화원 「제1회 소성백일장」의 현장일 것이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의 일환인 태안문화원 「소성백일장」 사업은 어느덧 ‘30회’를 맞이했다.

「소성백일장」은 문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태안군 내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를 문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창작 의욕 고취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및 필요성으로 실행되었다.

「소성백일장」 사업 초반에는 ‘백일장’에 걸맞게 현장에서 글짓기 대회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현장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해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수행은 매해 주제를 정해 학생들의 작품을 공개모집 한 후 지역문화회 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여 초·중·고 등별로 입상 순위(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30년 기간 동안 진행한 만큼
백일장의 역대 주제만 보아도 당시의 관심사와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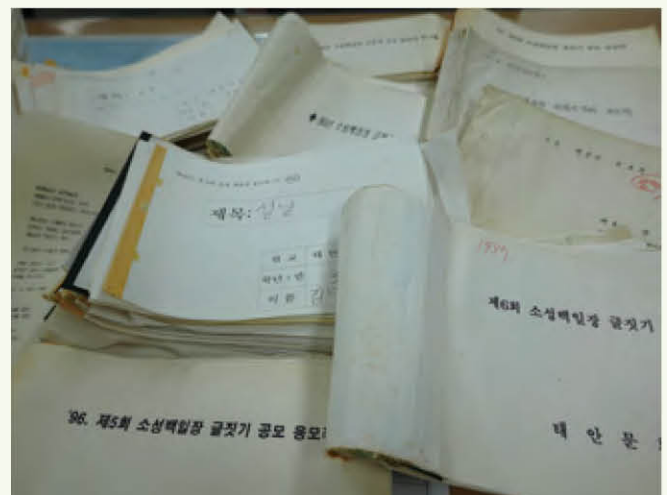


를 정한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품 그리고 공모작을 모아 제작한 소성백일장 작품집을 시상한다. 소성백일장 사업 초반인 1회(1992)부터 8회(1999)는 작품집 제작 및 디지털변환이 되어있지 않아, 현재 태안문화원은 아카이빙의 하나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년 기간 동안 진행한 만큼 백일장의 역대 주제만 보아도 당시의 관심사와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1992년 제1회 주제가 '애향'인 것을 보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컸던 시대적 성격을 알 수 있고, 2010년 제19회 '자연재해'라는 주제를 통해 태풍 '곶파스'가 우리나라를 관통해 큰 피해를 보았던 당시 상황을 상기시킨다. 역사가 길어진 만큼 「소성백일장」은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역사·문화적인 기능도 겸하게 된 것이다.

올해 진행한 「제30회 소성백일장」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중 예술이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이때, 우리말 '한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운문, 산문 부문별로 '한글'에 관한 생각을 표출한 공모작에는 현세대에 맞게 자유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모집되었으며 '요즘 아이들'의 생각 또한 엿볼 수 있었다.

해마다 「소성백일장」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 학생들을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미와 그로 인한 뿌듯함이 더없이 가득해진다. 장려를 받았던 학생이 다음 해에 우수상을 받고 그다음 해에 결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학생의 노력과 성장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작품집에 남기면서 태안문화원의 역할이 더 선명해졌다. 멈춤이 아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소성백일장」이 되기 위해 고민과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창작시

당신을 만난 날

글 장미숙 온양문화원

당신을 만난 날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월의 바람처럼

오월의 꽃비처럼

해살거리는 당신의 미소는

유월의 푸르름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에

커다란 우산이 되어 준 사람

눈 내리는 겨울날에

한없이 따스한 난로가 되어 준 사람

그대여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당신 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조그마한 자리 하나 내어 주십시오

당신이 아파 누워 있을 때

손잡고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당신이 잘 되어 있을 때

오랫동안 축하할 수 있도록

지금

쿵쾅거리는 이 설레임과 두려움이

먼 후일에도

스러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날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 창작 배경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다보니 젊은 날의 애뜻함은 멀어져 가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게 된다. 주름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편안한 친구 같지만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애송시

사랑에 답하다 - 나태주

글 권선옥 논산문화원

사랑에 답하다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주든지 받든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또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음에도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 ~니까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그 조건이 소멸했어도 사랑을 멈추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란 어려운 일이다. 그릇된 사랑은 상처가 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불리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시인은 사랑이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고, 싫은 것도 잘 참아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나중까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였더라도 그것이 없어졌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앓아졌다면, 사랑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다만 그 어떤 조건을 욕심낸 것에 불과하다.

사랑은,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 『할머니의 조각보』 - 패트리샤 폴라코 지음

글 김진경 보령문화원





내 인생의 책이라면 물론 성경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고전이며 명작이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는 책이기에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내 머릿속을 맴도는 많은 책 중 무엇을 고를까 생각하다 패트리샤 폴라코의 『할머니의 조각보』를 선택했다.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풀었다.

안나 증조할머니의 어머니는 안나가 자라자 새 옷을 지어준다. 그래서 안나의 작아진 옷과 바부슈카, 블라디미르 삼촌의 셔츠와 하바라 숙모의 잠옷, 나타샤 숙모의 앞치마로 조각보를 만든다.

안나 증조할머니의 어머니는 “고향 생각이 나게 말이야. 그러면 밤에 손잡고 춤추던 식구들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을 거야.”하면서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과 커다란 조각보를 만든다.

이후로 조각보는 안나 증조할머니, 칼 할머니, 패트리샤의 어머니 메리 엘렌 그리고 패트리샤의 결혼식의 천막으로 쓰인다. 그리고 칼 할머니부터 패트리샤의 딸 트레시까지 태어나 자마자 이불이 된다. 또한 안나 증조할머니의 무릎 담요가 되고 패트리샤에게는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추억의 조각보가 된다.

패트리샤 가의 여성들과 늘 함께 한 조각보였다. 짧은 동화지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어려움도 그려져 있다. 결혼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의 의미도 재미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무엇을 받았고 남겨주어야 하는가 했다. 또한 여러 대를 거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한동안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한

다면 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니 그것 또한 없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낡고 낡았을 조각보에 이야기를 담고 의미를 덧씌우니 한 가문의 훌륭한 역사가 되었다. 패트리샤 가 여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시간의 결이 잔잔한 감동이다.

대한민국에서가 아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는 보령해저 터널을 지나며 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문명의 발달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을 남겨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 새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새것은 아니다. 그러니 역사는 세상을 돌리는 수레바퀴가 되었다. 다만 바퀴에 치이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양새만 갖추어져 간다.

10년 전에 읽었던 동화다.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느라 읽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다시 읽었다. 가끔 책장에 꽂힌 동화들을 다시 읽으면 철이 드는지 늘 새롭다.

욕심이 될까. 이렇게 내 책장에서 다시 빼서 읽혀지는 책처럼 내 삶도 다른 이들에게 다시 꺼내보고 싶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서 읽는다. 그들은 단 한 번 밖에 읽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패트리샤 가의 여인들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진 조각보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그렇듯이 먼 훗날에 내 숨결과 내 손길이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 되기를 꿈꾼다.

헤아림으로 만나는 타인

이슬의 세상은 이슬의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 김연수

글 홍미경 논산문화원

부쩍 해가 짧아졌다. 저녁 여덟 시가 지나도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아 아직도 해가 저물지 않은 것이지 확인하게 된다는 작가와 달리 너무 빨리 저버리는 해가 아쉬워 시계를 자주 확인하게 된다.

작가 김연수는 늦게까지 머무는 저녁 빛과 달리 빨리 찾아드는 밤에 고바야시 잇사의 하이쿠를 떠올린다. “저녁의 벚꽃 오늘도 또 옛날이 되어버렸네”라는 한 구절에 이끌려 잇사에게 달려가는 것이다.

작은 것들에 대한 하이쿠를 1천 편 넘게 쓴 잇사에 대한 소개로 글은 시작된다. 곧이어 짧은 정형시 안에 담긴 긴 시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가 남긴 하이쿠 속에

담긴 인간 잇사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900년대 사람인 김연수가 하이쿠를 통해 1700년대에 태어난 잇사를 헤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아니 자주 말한다. 요즘 누가 책을 봐. 이 말에는 상대방의 생각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단단한 벽이 쳐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의 효용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는 논쟁을 만들어 낼뿐이다. 천하의 글쟁이 김연수도 이런 말을 들어봤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아름다운 답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연수는 잇사의 시를 직접 인용하여 보여줌으로써 문학이 가진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글 속에 무심히 늘어놓



은 시로 많은 이가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것들을 짧은 글 속에 담아내는 작가의 능력 자체가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다음 문학은 글 자체를 읽는 것을 넘어 글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과정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잇사의 시는 그냥 읽는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잇사의 인생을 이해하고 읽으면 그 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고 잇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

짧은 시간 안에 문화를 소비하는 스낵컬처가 대중성을 얻는 세상에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런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빠르게 온라인 안에서 소통하는 것에 열광하는 세대도 SNS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로움이 증폭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이에 반해 문학은 개인 간의 대면이 없어도 외로움을 남기지 않는 헤아림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이 가진 백미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은 결국 헤아림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 그것을 김연수는 자신의 글을 통해 직접 보여준다.



프로그즈

글 이 슬 천안동남구문화원

요즘 유명한 블로거, 인스타그램머의 피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핫한 식당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프로그즈' 식당인데 탄탄면, 우육면 등 중식을 파는 중식당이다. 영업시간은 11:30~21:00이고, 매장 앞에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식재료 납품하는 차를 주차해야 해서 주차는 어렵다고 하니 근처 갯길에 주차를 해야 한다.

식당 오픈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였는데 이미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을 보니 세어 테이블 3테이블이 있고, 각각 테이블마다 앉을 수 있는 인원은 4명 총 12좌석이 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모습은 테이블이 놓인 일반적인 식당의 모습이 아니라 원목으로 된 벽이 보이고 프로그즈 이름답게 식당 마스크트인 개구리 포스터와 중화풍의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그 옆의 선반에는 인센스 스틱, 티셔츠, 스티커, 성냥 등 깔끔하게 정돈된 물건들이 보였다.

짧은 복도를 지나 테이블이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게는 만석이었고 여기저기 메뉴를 고르느라 바빠 보였다.

대표 메뉴인 바질빤미엔, 마파두부미엔을 주문하였고 사이드

메뉴로 우육튀김을 주문했다. 바질빤미엔은 직접 제면한 생 메밀국수, 신선한 바질소스, 올리브오일, 샐러드크림블로 만든 요리이다. 바질빤미엔은 두 가지로 맛을 즐길 수 있는데 처음 나온 바질소스의 맛을 느끼고 후에 직접 만든 고추기름을 넣어 또 다른 풍미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마파두부미엔은 직접 제면한 유포미엔, 장시간 끓여 만든 고기소스, 부드러운 두부, 수란으로 만든 요리이다. 두부와 소스를 먼저 맛본 후 수란을 터트려 양념과 함께 비벼 먹으면 된다. 서비스로 약간의 밥이 제공되니 면을 먹은 후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 먹으면 면과는 다른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우육튀김은 소고기 튀김에 매콤 달콤한 간장 소스가 올려져있고 파채와 양상추가 입맛을 돋우어주어 중간 중간 입맛을 상쾌하게 해준다.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며 식당 내에 진하게 느껴지는 인센스 스틱의 향을 맡으니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홍콩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

친절한 직원 분들과 분위기, 음식을 다시 느끼고 싶고 다른 메뉴도 맛보고 싶어 추후 재방문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인증을 하는 맛집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이국적인 분위기와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란다.



메뉴

noodles

탄탄미엔
우육탕미엔
바질빤미엔
총요우빤미엔
마파두부미엔

side dish

파이황과
우육튀김
홍콩커피

drinks

alcohol
금상첨화
청산유수
큐컴버민트
차이니즈소맥

non-alcohol

제로콜라
스프라이트
무릉도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1길 3-6

영업시간 11:30 ~ 21:00 (매주 화요일 휴무) / 15:00 ~ 17:30 브레이크타임

가격 탄탄미엔 9,000원, 바질빤미엔 10,000원, 마파두부미엔 12,000원, 우육탕미엔 12,000원, 총요우빤미엔 8,000원

언제나 맛있게 [뚜쥬르 제과]

글 최은지 천안서북구문화원



천안 농산물을 본 떠 만든 빵.



돌가마 축소 모형, 빵을 굽는 원리를 설명한다.

의식주에서 가장 많은 요구를 원하는 것이 ‘식(食)’이라고 생각한다. 정갈하게 차려진 든든한 밥상 도 기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디저트와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콘셉트로 잘 꾸민 가게와 향긋한 빵 내음을 좋아한다. “나중에 밥 한 끼 하자”보다 “시간 될 때, 차 한 잔 하자”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다.

밥만큼 중요해진 차와 디저트. 디저트는 차를 더 풍미를 더하는데 한 몫 한다. 천안에 가장 맛있는 [뚜쥬르 제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뚜쥬르는 1998년에 천안 성정점에 오픈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빵집으로 유명하다. 뚜쥬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언제나’, ‘매일’이라는 뜻으로 고객들에게 언제나(매일) 맛있는 빵으로 보답한다는 뜻이다. 이름 따라 맛이 좋아 천안의 성정점을 시작으로 거북이점, 구룡동의 돌가마점, 백석동의 갤러리 아점으로 발을 넓혀 천안에 오면 꼭 방문해야하는 곳이 되었다.

그 이유는 특색을 잘 살리는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대표 빵인 ‘거북이빵’은 천연효모를 14시간 이상 발효시켜 만든다. 천

뚜쥬르(성정점, 거북이점, 돌가마점, 갤러리아점)

영업 오전 8시~22시

맛집 프로필

2014년 U.S치즈 경연대회 기술상(빵 부문)

2015년 서울 국제 빵,과자전 경연대회 최우수상(초코릿 부문)

2016년 독일 요리올림픽 IKA올림픽 금메달(설탕공예)

2017년 서울 국제 빵,과자전 경연대회 최우수상(빵공예부문)



매일 팔을 끓이는 곳이다.



천안 쌀과 밀로 만든 유기농빵.

천히 느리게 하지만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빵이다. 또 다른 빵으론, 스페인 화산석으로 만든 돌가마에 구운 가마 모양의 '돌가마빵'과 통팔과 천안의 특산물인 호두를 넣은 '돌가마만쥬' 가장 유명하다.

뚜쥬르 제과점이 이토록 유명하고 맛집이 된 것엔 장인정신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방부제, 색소, 광택제등 화학첨가물을 배제하고 천안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건강한 빵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20년 동안 장인이 국산 팥을 매일 직접 끓이고 노련한 기술로 팥 특유의 식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한

다. 그 외에도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과장들, 재료 및 매장 청결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으며, 맛 또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방문한 돌가마점은 매우 넓고 빵, 케이크, 초코렛 매장이 각각 따로 있다. 체험장도 따로 조성되어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시간 날 때 한번 방문하길 추천한다.

외출이 어려운 요즘이지만 갓 나온 따끈한 빵과 커피한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서천 서각동호회

글 김정환 서천문화원

‘딱딱’ ‘톡톡’ ‘또각또각’ 수요일 오후 조각도와 망치가 만나 울리는 경쾌한 소리가 문화원에 울리고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없던 나무 위에 글과 그림 등이 새겨지며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번 충남문화 문화공감에 서천문화원에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서천 서각동호회 회원분들로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십여

명의 회원분들이 문화원을 찾아 서각수업과 작품활동을 같이 진행한다.

‘서각’은 이름 그대로 풀이해보면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장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광개토대왕릉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해 고궁의 현판 등이 서각의 대표적인 작품으



로 어디서든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예술 분야이다.

이 서각 작품활동을 위해 모인 서천서각동호회는 2020년 서천문화원 문화강좌로 시작해 지금은 군민제안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는데 40대에서 70대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진행되는 수업시간 외에도 별도의 동호회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작품활동과 전시 활동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서각동호회 회원들은 서각의 어떤 매력에 빠졌기에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열의를 보이는 걸까? 서각반의 김혜란 선생님은 “좋아하는 그림이나 글이 손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색되고 각색돼서 작품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 그 매력에 빠져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작품을 창조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작품활동을 하는 ‘서천서각동호회’ 불과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열정과 노력에 이미 다들 베테랑이 되었고 서천문화원 전시회뿐만 아니라 서천군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죽은 나무에 마음을 새겨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서각’ 고풍스러운 전통의 미학, 문(文)과 각(刻)의 만남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표현 욕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새기는 사람의 손끝과 칼끝에서 마음이 아로새겨지는 예술. 그 매력에 빠진 서천의 서각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서천 서각동호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본다.





우리춤으로 행복한 동행

글 주희진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은 1957년 창립한 이래, 아산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아산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할 한국무용강좌 또한 온양문화원을 대표하는 강좌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중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때, 본원에서는 우리 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세대에게 한국무용의 맥을 이어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좌가 일시 중지되기도 하고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문화 활동이 침체되어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위안과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본원에서는 지

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빠른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2021년 다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한 동안 조용했던 강의실에서 음악소리와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 오며 정다운 풍경과 함께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은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무용을 접하거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수강생은 기초반 수업이 가능하며 난이도가 있는 동작과 다양한 작품내용을 원하는 수강생은 중급반 수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무용은 상, 중, 하체 동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작이 절도 있고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동작을 수행하는데 중심잡기에 용이하며 상, 중, 하 단전을 이용하여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건강증진을 촉진시켜 줍니다. 한국무용의 발디딤새와 팔사위는 대삼소삼을 강조하여 강한 멈춤과 부드러운 멈춤, 혹은 끊는 듯 흐르며 흐르듯 멈추는 동작으로 내면의 깊은 미를 배우게 하며 리듬감, 유연성, 균형감각 등을 향상 시켜 주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건강하게 배우기에 좋은 춤입니다.

온양문화원 한국무용 수강생은 주로 40~70대 여성이 가장 많은데 육아와 살림살이의 독박에서 벗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적 한국무용을 접해 본 사람, 혹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무용 공연을 보고 흥미를 느낀 경우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춤을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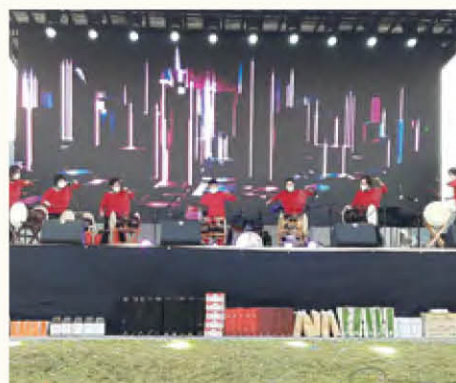
본원의 한국무용 수강생은 제1회 아산시민 생활문화 한마당

참가를 시작으로 4.28 지역 예술인 한마당, 온양문화원 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한국무용협회 아산지부 정기 공연 등 매년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활동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5회 전국 주부 끼 자랑 경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충남문화재단 2020년 충남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2021년 충남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등 여러 공모사업에도 참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는 회원들이 모여 도담पुर리 무용단이라는 어머니 무용단을 결성하여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신명을 배우고 공연하며 우리나라 춤의 우수성을 보급하면서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시민과 공유 할 수 있는 문화기틀을 마련하여 한국무용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보다 더 열정을 다해 춤을 배우고 춤을 추며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온양문화원 한국무용 회원님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춤으로 행복한 동행의 자리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청양문화원 가요장구

글 김 진 청양문화원



땡따궁따 엇따궁~찐 찐 찐 찐이야~~~

멀리서 들려오는 트롯음악과 장구소리는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신나고 즐겁게 연습하면서 실력과 꿈을 키워가는 청양가요장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작년에 가요장구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몇몇 분들이 문화원으로 문의를 하셨는데 문화강좌 중 가요장구 수업은 개강하지 않아 아쉬워하며 돌아가던 중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지원받아 동아리 모집 공고를 하게 되었고 가요장구동아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트롯을 좋아하고 장구를 사랑하는 가요장구 동아리 팀의 회원들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수업을 빠지지 않으려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거나 휴가나 조퇴로 시간을 쪼개어 참여하며 배우고자하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현재는 피아노 선생님이신 강사님으로 구성된 7인조이며 기존의 사물놀이 장구를 넘어 국악, 트로트, 가요 등 누구나 좋

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장구를 연주하고 끼와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장구와 트롯 등 즐거운 여가생활과 취미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동아리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충남생활문화한마당에 공연팀에 선정되면서 주말에 모여서 장구와 춤을 맞춰보며 “우리는 최우수상 바라지 않아, 모두에게 웃음을 주면 돼. 보는 사람들이 마냥 즐겁고 웃으며 신나면 되는거지~”하시던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고 신나게 배우며 함께 하는 것이 가요장구동아리의 마음이사라며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이 전해졌는지 충남생활문화한마당 경연대회에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이 즐거워했고 결과는 한 번도 타기 힘들다는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많은 가락과 곡을 연습하여 앞으로도 웃음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청양 가요장구 파이팅!!! 입니다.



2021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202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2021. 2. 18(목) 14:00

장소 충청남도청 본관동 소회의실 302호



2021 근·현대 구술채록 및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실무 간담회

일시 2021. 3. 26(금)

장소 홍성문화원 본관 3층 세미나실



202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월례회의

일시 2021. 5. 17(월) 15:00

장소 홍성문화원 별관 2층 회의실

2021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계룡시 동아리 간담회

일시 2021. 5. 21(금) 15:00

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시청각실



2021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세종 지역예선

기간 2021. 7. ~ 9.

장소 충청남도 일원

공연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충청남도 및 세종시
어르신 동아리 중 최고의 고수를 찾기 위한 예선
프로그램 진행



202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일시 2021. 9. 8(수) 14:00

장소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회의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1차 추진위원회의

일시 2021. 9. 13(월) 14:00

장소 홍성문화원 본관 2층 회의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2차 추진위원회의**

일시 2021. 9. 23(목) 14:00
장소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회의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일시 2021. 10. 23(토) 10:30
장소 충청남도청 남문 잔디광장 일원



**202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일시 2021. 11. 15(월) 10:00
장소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회의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업무회의**

일시 2021. 10. 5(화) 14:00
장소 홍성문화원 별관 2층 회의실

**2021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충남생활문화한마당 3차 추진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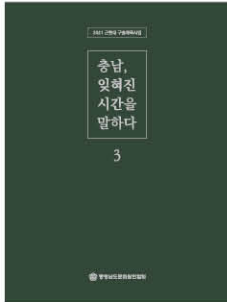
일시 2021. 10. 13(수) 10:30
장소 홍성문화원 별관 2층 회의실



**2021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기간 2021. 12. 17(금)~18(토)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

충남, 잊혀진 근현대 시간을 말하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충청남도 15개 지방 문화원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우리 지역

어르신에게 잊혀져가는 근·현대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의 각 지역 담당자가 구술자와의 심층적 면담과정을 통해 채록한 정보를 스토리텔링하여 모은 이야기를 매년 하반기에 채록 자료집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담아 발간하고 있다. 구술자 238명

의 이야기를 담은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1)」 채록 자료집을 시작으로 올해는 구술자 141명의 이야기를 엮어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3)」을 발간하였다.

올해 자료집에 담긴 각 지역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문화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천안시동남구문화원) ▲달빛 속에 물든 세월 이야기(천안시서북구문화원) ▲산골 할매 이야기(공주문화원) ▲보령의 바다(보령문화원) ▲아산의 전통주(온양문화원) ▲수리시설로 수몰된 마을 이야기(서산문화원) ▲논산의 교육 발전(논산문화원) ▲사라진 또는 변화한 마을(당진문화원) ▲금산의 직업(금산문화원) ▲부여의 새마을운동(부여문화원) ▲서천 금강하구

생태문화의 변화(서천문화원) ▲서당의 운영과 교육전반(청양문화원) ▲학교의 옛 모습(홍성문화원) ▲예산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예산문화원) ▲태안 지역의 해양문화(태안문화원) ▲장사가 업이었던 사람들(충남역사문화연구원)

다사다난한 근·현대 시대를 겪어온 어르신들의 희로애락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후세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연합회 관계자가 전했다.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사업 운영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1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12월 17일(금)~18일(토), 2일간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에서 충남 지방문화원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1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은 문화원의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임직원들 간의 소통과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문화원 임직원의 워크숍 진행되지 못했던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소한의 필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일차는 문화원 역할 모색 및 업무 역량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권선옥 논산문화원장을 강연자로 모셔 대민 업무의 중요 노하우를 알려주는 소통 스킬을 배우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이흥재 前 추계예술대학 교수 강의를 통해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문화원의 관계점을 찾아 문화원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지역과 지방 문화원을 주제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송은옥 부장이 앞으로 지역문화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함께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의호 보령문화원장의 해설이 이끈 2일차는 보령시 문화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보령시와 태안군을 잇는 보령해저터널을 거쳐 새로운 서해안 관광거점으로 급부상한 원산도로 찾아가 오봉산 봉수대를 오르며 원산도의 지역 특색을 배우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26대 김윤식 문화원장 취임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제25대·제26대 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천안시동남구문화원 2층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취임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임원진과 이취임 원장님들의 가족정도만 초청하여 약식으로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제25대 문화원장인 조성오원장(2017. 02. 24.~2021. 02. 23.)까지 본원에 취임하여 문화원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심점이 되는 역할에 기여하였으며, 전통 절기와 관련된 전통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계승하여 지역민에게 널리 알렸다. 또한, 원사 내·외부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

해 지역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저변확장을 마련하였고,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는 등 문화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26대 문화원장인 김윤식원장(2021. 02. 24.~2025. 02. 23.)은 직전 부원장으로서 동남구문화원과 함께 수년간 동행하고 계셨던 분이다. 김윤식 문화원장의 포부 넘치는 취임사를 끝으로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신 역대 원장님들의 노력을 뒤이어, 올해 취임하신 김윤식 문화원장의 행보를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지난 10월 7일 (목)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1지방문화원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

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종호 원장은 2015년 5월 온양문화원장에 당선, 취임한 후 그동안 온양문화원 생활문화 및 문화학교 활성화에 주력하여 월평균 600여명의 수강생과 동아리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 문화 단체인 가교로 헌신해 문화원의 역할을 높이고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온양문화원, (재)아산문화재단, 한국예총 아산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을 위해, 10월 30일 “힘을내요 아산! special drive in concert”의 모티브로 ‘제2회 아산시 달그락 drive in concert’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원의 내실을 기하고, 아산시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며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양문화원은 800여명의 법인회원 및 600여명의 문화강좌생, 동아리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화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공주문화원

제17대 최창석 문화원장 이임, 제18대 이일주 문화원장 취임

공주문화원은 지난 6월 29일(화) 오후 5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제17대 최창석 원장의 이임과 제18대 이일주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창석 이임원장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또한 이임 원장은 이임사 대신 하모니카 연주와 공주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했던 영상들을 소개하며 4년간의 문화원장직을 마무리했다. 이어 취임식에서 제 18대 이일주 문화원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공주, 세계유산도시 공주시

의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진 회원들과 함께 격이 높은 문화·예술 계승 발전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주문화원 개관 70주년을 맞는 해로 전임 원장님들이 닦아놓은 기반위에 평생 쌓아온 역량을 총 동원 문화원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며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 공주, 70년 긍지 높은 공주문화원이란 슬로건으로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문화원

‘2021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공주팝소케스트라 사이니셋별상

소오케스트라(단장 류인수)가 사이니셋별상(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과 상금 150만원을 수상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18일(수) 우리문화원에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유환동) 주관으로 열린 ‘2021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 세종지역 예선에 공주팝소케스트라(단장 류인수)가 예선 1위에 올라 9월 15일(수)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극장에서 열리는 본선무대에 진출했다. 장르·분야 별 숨은 어르신 예술가를 만나는 대규모 전국 경연 대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팀의 경연 영상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대국민 온

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5800여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온라인 투표 점수와 전문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우수 단체를 선정했다. 공주팝소케스트라는 40~70대의 연령층으로 현재 36명의 단원들이 관악기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해 오고 있다. 2015년 시작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2021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문화를 매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축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문화예술 축제 ‘2021 실버문화페스티벌’에 우리문화원 대표로 출전한 공주팝

논산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선정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이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에서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30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이 우수한 문화원을 발굴 표창하고 있다. 논산문화원은 지역 문화 발전기여도, 특색 프로그램 운영 내용, 지역 내 문화원의 역할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권선옥 원장은 취임 이래 문화원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 문화원 회원이 3배로 증가되었고,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국의 문화재 답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 문화학교는 연 1,000여 명 이상

시민이 수강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문화 사랑방, 논산문화의 날, 논산 이야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와 확대를 가져왔다. 지역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논산 마을이야기 『정답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외 9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기록 사업도 펼쳤다.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으로 고고'라는 특색 프로그램과 매년 관내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재와 선현을 알리는 등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매년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물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논산학, 충남학, 충청유학 강좌를 개설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와 같은 지역 문화 행사와 문화 예술 동아리의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화 예술의 향기가 구석구석 퍼지고 있다. 매



년 청소년 문화제를 통해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등 종합 경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0월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문화원 한 회원은 그동안 문화학교 강좌를 들으며 우울증도 극복하였고 다양한 문화원 사업에 참여하며 삶의 의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감사했는데 최우수 표창 소식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금산문화원

공명아우라 금산아트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금산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인 공명아우라는 지난 10월 30일, 제1회 금산아트 페스티벌에서 한국음악기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금산아트페스티벌은 금산군과 금산다락원의 주최, 대전MBC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금산에서 개최된 음악경연대회이다. 문화예술 활성화뿐 아니

라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군민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고자 개최되었으며, 금산군민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기악, 성악, 무용 등의 분야에 참가하여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온택트 방식의 대회였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공명아우라는 금산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로, 대부분이 4~50대 여성으로 이루어진 난타 동아리이다. 금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여성들이 모여 국악의 매력에 빠져 시작하게 되었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공명아우라는 열정적으로 국악을 알리려 노력해왔으며, 봉사활동, 축제장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였다. 또한, 전신인 풍물마당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

히 국악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이력도 가지고 있다. 공명아우라는 이번 금산아트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외에도 전 부문 참가자 중 유일하게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상인 인기상 또한 수상하였다. 국악이 좋아 시작한 평범한 여성들의 동아리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침체되어있던 금산의 문화예술동아리, 또는 개인의 활동이 활발해져 공명아우라와 같이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2021 충남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3호	87. 02.		회장 유환동	사무처장 조남민	김상희 조민영	T.635-9102 F.635-9104
천안시 동남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58.04.20	487	김윤식	곽승일	이 슬 손영주	T.564-1022 F.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05.10	275	이종석	신광식	문경희 최은지	T.581-2101 F.582-1725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동1길 66(반죽동)	54.12.16	2,160	이일주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T.852-9005 F.856-6746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56.03.02	739	황익호	한흥호	김명희	T.934-3061 F.936-3071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05.10	824.2	정종호	김형기	이지윤 박현미 박상규	T.545-2222 F.542-4444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57.06.15	1,884	편세환	김영철	이용배 길현정 윤재경 김윤옥 김예지 이연주	T.669-5050 F.669-4567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57.11.14	1,757	권선옥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김창숙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55.09.01	1,130	유장식	강대원	이아름 차승훈 모선호 김아담	T.354-2367 357-2367 F.356-3850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7.11.18	1,203	장 호	전병만	이 진 김소연 김주은	T.754-2724 F.754-661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54.03.01	3,432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박진수 김미완 김영란	T.835-3318 F.833-3318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5.01.26	4,272	이관우	박은희	정혜옥 김정환	T.953-0123 F.953-0133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55.04.17	945	임호빈	복은주	차승원 김 진 이병옥	T.943-4774 943-4775 F.944-1030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54.03.31	1,995	유환동	조남민	김숙희 이경진 모태희	T.632-3613 F.633-1199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65.05.25	2,530	김종옥	박세진	〈본원팀〉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홍성희 하종민 〈극장팀〉 장화수 이다연 박지혜 최유주	T.335-2441 332-2441(별관) F.334-43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90.06.05	3,507	정낙추	정지수	김유미 안은선 조지현 안상은	T.674-2192 F.675-6968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문화로 하나되는 충남!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